

성경 공과

제2권

기초 1반 (Basic Class 1)



야곱의 꿈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2권

Basic Class 1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2권 제1반, primary class만을 가지고 기초1반, Basic Class 1으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반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은 세 겹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인 글자적 의미는 성서 글자를 통해 직접 전달되고 있을 뿐아니라 나머지 더 깊고 더 높은 수준의 두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있어 그릇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기록을 머리에 담아 두지 않는다면 더 심오한 의미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주님의 인간과의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우리 기억 속의 성서 글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반이라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철저히 기억 속에 저장하려 겸손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욥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 (King James Version)을 사용해야 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역이 심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차례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첫 4일)	창세기 1장1-19절	9
2. 아담의 일을 거들 짝	창세기 2장 8-25절	13
3. 홍수가 빠지다	창세기 8장	16
4.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20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장 1-14절	25
6.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	29
7.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39; 40장	33
8.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38
9. 마라와 엘림	출애굽기 15장	42
10. 례	출애굽기 25장 1-12절	46
11. 열 두 스파이	민수기 13; 14장	50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여호수아 1장	56
13. 아이 성의 포획	여호수아 7; 8장	60
14. 판관 기드온	판관기 6; 7장	67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상 3장	74
16. 사울의 성급함	사무엘상 13장	78
17.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82
18. 솔로몬의 영화	열왕기상 9:10장	88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94
20. 히즈기야 왕과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98
21. 시편에 관하여(2)	시편 19편	103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2)	예레미야 1장	107
23. 에제키엘의 환상	에제키엘 1장	111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요엘 4장 9-20절(개역 성경 3: 9-21)	116
25.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 1, 2장	119

26. 주님의 세례	마가복음 1장	123
27. 새 포도주	마가복음 2장	128
28. 열 두 사도	마가복음 3장	133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마가복음 4장	138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마가복음 5장	143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가복음 6장	148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마가복음 10장	154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마가복음 11장	159
34. 성 만찬	마가복음 14장	164
35.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마가복음 15장	171
36. 부활하신 예수	마가복음 16장	176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4장	180
38. 봉인된 책	요한 계시록 5장	184
39. 심판과 거룩한 성	요한 계시록 20장 1-15절, 21장 1-7절	188
40. 새 교회 날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192

1

창조 (첫 4일)

머리말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창조 이야기가 성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이다. 이는 영적 이해와 진정한 선한 생활에 필수 사항이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와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배움을 위한 유일하며 확실한 근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열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제 2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부의 기초인 책은 주님의 책이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의 첫 4일 동안에 관한 것이나, 7일간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볼 예정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1-19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돌아 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돌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해설

여러분은 하느님이 빛을 만드셨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아마 어느 날 아침 푸른 하늘과 밝게 비추는 태양을 보면 밖으로 나가 그것을 즐기려고 할 것이다. 반면,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집안에 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하늘을 가리더라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떠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이 지나 밤이 온 후 밖은 깜깜해진다. 집안도 전기 불을 켜지 않으면 온통 어둡다. 이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구의 다른 쪽에 빛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한번쯤 한 밤중에 밖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창공에 걸쳐 있는 달과 별도 보게 되는데, 하느님은 그것 역시 만드셨다. 그분은

하늘, 지구, 식물, 나무들, 새들, 고기들 그리고 동물들 전부를 만드셨다. 또한 모든 사람도 만드셨다. 하느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기심은 사랑에 정반대되며,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한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까지도 불행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하느님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넷째 날에 어떤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는가?
- * 그리고 어떤 작은 빛을 만드셨는가?
- * 해가 우리를 위해 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보자.
- * 달과 별은 언제 볼 수 있는가?
- * 항해사들은 밤중에도 별에 의해 배를 조종할 수 있다.
- *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 *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 2) 하느님에 대해 어떤 책이 말해 주는가?
- 3)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 4)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는가?
- 5) 성서는 며칠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 6)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성서 3) 우리로 보게 해줌 4) 해, 달, 별들
- 5) 6일 6) 하느님이 쉬셨다

2

아담의 일을 도울 짝

머리말

본문은 글자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지만 그 이야기는 놀랄만하다. 따라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미리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는 본문을 읽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과의 짧은 지면에서 예상되는 질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의문은 본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흥미를 더해 갈 것이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의 짧은 구절에는 어느 누구도 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깊게 감추어진 의미가 들어 있다. 단어 “갈빗대”에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로부터 말씀의 모든 생명이 오고 있음을 염두 해 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8-25절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월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세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게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해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사람을 위해 하셨던 것에 관해

읽고 있다. 그분은 에덴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동산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 두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더 있었다. 여러분은 한번쯤 홀로 있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화창한 아침에 일어나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 놀지만 홀로 노는 것에 별로 만족치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본문에서 아담이 어떻게 느꼈을까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아담이 어떻게 느꼈는지 당연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한 가지 것을 더 주기로 계획하셨다. 우선, 주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을 데려다 주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다. 따라서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동물이나 새들 중 어느 것도 아담이 원하는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를 도울 짝을 원했다. 짝이란 각자에게 가장 걸맞은 동반자를 의미한다. 천국에서의 남자와 그의 진정한 아내는 다른 천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들은 둘이 아닌 한 명의 천사로 보이게 된다.

요점정리

- * 제 21-23절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아담에게 걸맞은 조력자를 설비하셨는지 알아본다.
- * 이 이야기로 인해 아내는 때로 “협조자 혹은 내조자”라고도 불린다.
- * 모든 좋은 아내는 남편을 위한 조력자이다.
- * 남녀는 서로 돕도록 창조되었다.
- *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연습해 간다.
- * 본문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뒤의 공부를 참조하자.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이 책은 누가 썼는가?
- 3)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창세기란 어떤 의미인가?

- 5) 첫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주어졌는가?
- 6) 에덴의 동산은 무엇으로 적시어졌는가?
- 7)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무엇을 설비해 주셨는가?
- 8) 동산에서 어떤 두 나무가 특별히 언급되는가?
- 9) 본문에서는 첫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불리는가?
- 10) 아담은 가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을 원했는가?
- 11) 주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에 관해 무엇을 해보라고 하셨는가?
- 12) 아담이 잠들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13) 신화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 2) 하느님 3) 창조 4) 시작 5) 에덴 6) 강
- 7) 과일 나무, 씨 있는 식물 8) 생명, 지식 9) 아담 10) 아내
- 11) 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붙임 12) 갈빗대를 취하시어 여인을 만듦
- 13) 황금시대

3

홍수가 빠지다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문인 8장과 더불어 5 - 7장을 읽어두면 홍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그리고 천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에 대한 비교가 많이 언급될 것인데, 본과를 통해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서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8장

8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들의 생각이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기 시작하였다. 2.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3.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백 오십 일이 되던 날인 4. 칠월 십 칠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5. 물은 시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시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6. 사십 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7.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 다녔다. 8.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9.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 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 들였다. 10.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11.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 왔는데 부리에 금방 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12.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 백 한 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14. 이월 이십 칠일, 땅이 다 마르자, 15.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17.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위에서 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19. 들짐승과 짐승과 새와 땅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20.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21.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해설

우리는 강이나 호수 물이 정상 수준 위로 올라와 독을 넘어 육지로 침범되어질 때 홍수라고 부른다. 때로 넘치는 물은 집 또는 가축을 쓸어버리거나 온갖 파괴적인 재난을 뒤따르게 하기도 한다.

본문 속의 홍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홍수 중에서도 가장 큰 홍수로 일컬어진다. 앞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다. 그 곳에서 주님은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금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한번쯤 하지 말라는 일을 기어이 하고 싶은 충동이라는 시험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 충동을 따르게 될 때 발생할 일은 자명하다.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충동의 시험을 겪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 주님께

불순종했다.

여러분은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을 변호하고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 즉, 거짓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낸다. 이리하여 한 가지 잘못이 여러 개의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인한다. 따라서 처음의 잘못보다 뒤의 잘못은 점점 커져 간다. 그러나 결국 그 행위는 드러나고 처벌되어 심각한 불행으로 이어진다. 아담과 이브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추방되어 그들의 생활을 꾸러가야 했다. 그들 후손 역시 잘못을 저질렀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나빠져서 산꼭대기까지 덮어 버리는 홍수로 멸망되어야 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남아 있었다. 홍수가 있기 바로 전 주님은 그들을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분부하셨다. 이 방주는 나무로 된 집 형식의 배인데 규모가 커서 그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많은 동물과 새들 모두를 위한 식량이 실렸다. 방주의 내부는 여러 방으로 구성되었고 3층으로 건축되었다. 그리고 한 쪽에는 입구와 지붕에는 창문이 있었다. 홍수가 시작되자 방주는 홍수위에 둥둥 떠 있게 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원되었다.

비는 40일 주야로 쏟아져서 물은 점점 많아졌다. 마침내 비는 멈추었고 홍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본문이 시작된다. 8장 6-12절을 읽고,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자.

노아가 날려 보낸 까마귀는 주변을 날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는 처신해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의 우리를 말한다. 그러나 비둘기는 노아를 도울 수 있었다.

마침내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가 마른땅 위에서 다시 살라고 말씀하셨다. 노아가 밖으로 나가 행한 첫 번째 일은 주님의 제단을 쌓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내에 제단을 둔다. 이 제단 역시 노아가 쌓은 제단과 동일한 목적으로 놓인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기 위해 무슨 새 두 마리를 내보냈는가?
- *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 비둘기는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
- * 두 번째로 비둘기는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 세 번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 이 새는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질문 정리

- 1) 인간이 창조된 후 그들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2) 왜 그들은 만족치 못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가?
- 4) 인간은 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항상 살 수 없었는가?
- 5)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의 길로 갈 때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가?
- 6)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7) 누가 구원되었는가?
- 8)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9)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는가?
- 10) 비가 그쳤을 때 노아가 연 창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 11)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12)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13)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는가?
- 14) 첫 번째에는 무엇이 발생했는가?
- 15) 비둘기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16) 세 번째에는 어떠했는가?
- 17)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는가?
- 18)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독립하기를 원했다
- 3) 이기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4) 불순종했기 때문
- 5)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6)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7) 노아 8) 방주 9) 40일
- 10) 방주 꼭대기 11) 까마귀, 비둘기 12)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 13) 세 번 14) 되돌아 왔다 15) 올리브 잎 16) 되돌아오지 않았다.
- 17) 제단을 쌓았다. 18) 더 이상 홍수가 없게 하리라.

4

아브람과 롯

머리말

본문 외에 11, 12, 18 그리고 19장에 걸쳐 롯의 이야기 전체가 연결된다. 아브람과 롯의 가나안으로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지역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로는 사해 부근으로 추측되며, 성경 시대상으로는 요르단 평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서본문: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13장: 1.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3.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 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5.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 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6.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9.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10.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11.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14장: 1.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룩,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2.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인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뫼 골짜기는 지금 짠물호수가 있는 곳이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룻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엠족을 치고 6.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내려 왔다. 7. 그들은 거기에서 말을 돌려 재판 샘터가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 가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인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룩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10. 그런데 시뫼 골짜기에는 역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12.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13.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 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벨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14.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 낸 사병 삼백 십 팔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때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슭,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16.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 냈다.

해설

다음의 문답 및 요점을 통해 앞서 공부를 재정리하고 본문을 공부하자.

- * 노아는 홍수로부터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홍수가 끝나자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 보냈는가?
- * 사람이라는 전 종족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졌다.
- * 이 후손들은 한동안 잘 살았으나 한참 후에 주님을 다시 잊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고집대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 그렇다하더라도 주님은 다시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들은 지상의 여러 곳으로 흩으려졌다.
- *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 첫 몇 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 * 이 이야기를 바벨탑의 이야기라고 부른다.
- * 그 후 주님은 그분께 순종해 온 사람을 발견하셨다. 그가 바로 아브람이다.
- *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왔을 때 처음에 어디로 갔는가?
- * 그곳에서 아브람은 다시 주님을 예배했다.

* 아브람과 롯은 어떤 문제를 갖게 되었는가?

* 아브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브람은 처음에 「우르」에 살았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땅이 장차 그의 고향이자 대대손손의 고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나안 땅은 우르 지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아브람은 주님께 순종했다. 그는 사래라는 그의 아내와 아버지가 죽어 고아가 된 조카 롯도 데리고 갔다. 또한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 데라도 같이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정착했는데, 그곳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아브람과 사래 그리고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멈춘 지역은 베델이었다. 베델은 차후 자주 거론되므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첫 일처럼 아브람 역시 베델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했다. 이는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 후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남부로 더 멀리 갔는데, 당시 그곳은 기근이 아주 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동안 이집트로 내려가 있어야만 했다. 주님은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은 “가축과 은 그리고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롯은 소돔 성 근처에 살려고 갔는데, 그는 머지않아 곤경을 겪기 시작했다. 한번은 아브람이 내려가서 소돔을 친 적들로부터 롯을 구해야 했다. 후에 주님은 두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셔서 소돔이 사악함으로 인해 멸해질 때 구해 주시기도 했다. 본문은 롯과 아브람의 선택을 통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택의 삶을 살기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본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 3) 왜 그들은 우르를 떠났는가?

- 4)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그는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 6)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어 돌아왔는가?
- 7) 그들이 되돌아 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8)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 9) 아브람은 롯에게 무엇을 제의했는가?
- 10)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가?
- 11) 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
- 12)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위험이 그곳에 있었는가?
- 13) 롯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는가?
- 14) 누가 그를 구했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람과 롯 2) 갈대아 우르 3) 주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 4) 체단을 쌓았다. 5) 이집트 6)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 7) 베델 8) 목자들이 다투었다. 9) 지역의 선택 10) 평야
- 11)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12) 소돔 13)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 14) 아브람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머리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령에 얻은 아들 이사악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할 수 있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2장 1-14절

22장: 1.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아!”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2.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4.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6.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깔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9.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엮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1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1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13.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한다.

해설

아브람과 롯이 서로 분리된 후,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는 거룩한 땅의 남부 지역에서 살았다. 아브람은 주님이 그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 주실 정도로 그분께 순종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에 “h”라는 알파벳이 더해져 아브라함(Abraham)과 사라(Sarah)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후대에 기억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원했으나 갖지 못했던 아들도 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매우 늙었다. 따라서 그들의 아들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 이름은 “이사악(Isaac)”이며, 그 이름은 “웃음”을 뜻한다.

이사악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입어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여 그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야겠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정한다.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갖도록 허락되어 매우 행복했다. 그리고 이사악은 성장하여

그의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해 보려고 시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서 실수로부터 비롯되는 실제의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찾고자 더욱 배우려고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음도 명심해야 한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물은 무엇인가?
- *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죽여 제단 위에 태우면 그것이 주님에게 바쳐진다고 생각했는가?
- * 이것을 “제물”이라고 부른다.
- *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 우리는 그곳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곳이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 * 아브라함은 그가 계획했던 것을 이사악에게 말하지 않았다.
- *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 이사악이 제물이 되기 직전 누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못하게 했는가?
- * 그 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어떤 번제물을 발견했는가?

질문 정리

- 1)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2)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4)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도록 시험되었는가?
- 5) 그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는가?
- 6) 주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 7)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8) 모리아산에는 오랜 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 9) 아브라함의 여행은 며칠이 걸렸는가?
- 10) 아브라함과 이사악 외에 누가 여행을 함께 했는가?
- 11)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12)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는가?
- 13)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14)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15)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느 시험에서 멈추게 했는가?
- 16) 주님은 그를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17)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무엇을 제물로 발견했는가?
- 18) 시험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가?

질문의 답

- 1) 사래 2) 이사악 3)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다.
- 4)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5)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6)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도록(확증하도록) 배려해 주심
- 7) 모리아산 8) 성전 9) 3일 10) 두 종 11) 나귀, 장작, 불, 칼
- 12) 이사악, 아브라함 13)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 15) 그가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에 16) 천사 17) 수양
- 18) 아니다

6

야곱의 꿈

머리말

세 가지 요점을 연결하여 본과를 진행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 야곱과 이사악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 2) 하란 지역 그리고 3) 베델 지역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8장

28장: 1. 이사악은 야곱을 불러 들여 복을 빌어 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2. 너는 바딤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3.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5. 그리고 이사악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바딤아람으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6.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바딤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7.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딤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8.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한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13.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4.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하며 17.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이로우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20.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21.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22.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해설

이사악은 자라서 그의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과거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손녀이다. 이사악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름은 야곱과 에사오이다. 여러분은 그들이 쌍둥이여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을 것이라고 추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외관뿐

아니라 성격도 달라서 서로 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악과 리브가는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한동안 그들을 분리시켜 두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그들은 야곱을 하란에 사는 그의 삼촌 라반에게 보냈고 그곳에서 야곱이 좋은 아내를 얻기를 희망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그곳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 이유는 그곳 여인들이 주님 대신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야곱에게 홀로 하란으로 향한 긴 여행은 무척 힘들었다. 그는 여행 도중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또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고향을 사랑했고, 만사가 잘 되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야곱의 꿈은 오랜 여행길에 있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와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그를 지켜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야곱이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멈춘 곳은 어디였는가?
- * 그는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 그는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는 이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 “베델”은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다.
- * 야곱은 베고 자던 베개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 야곱 외에 베델에 제단을 쌓은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 * 야곱은 주님에게 무엇을 서약했는가?
- * 우리 역시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야곱의 사다리를 갖고 있다.
- * 여러분은 야곱의 사다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는가?
- * 야곱의 사다리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게로 올라가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 이는 마치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같다.

* 천사라는 단어가 “전달자”를 뜻함을 알고 있는가?

질문 정리

- 1)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누구인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가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낸 곳은 어디인가?
- 5) 여러분은 본문 외에 어느 부분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접했는가?
- 6)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7) 그는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8)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9)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10) 천사란 무슨 뜻인가?
- 11)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는가?
- 13)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가?
- 14) 꿈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질문의 답

- 1) 에사오와 야곱 2) 아내를 구하고 형을 피하기 위해서 3) 하란 4) 베델
- 5) 아브람의 이야기 6) 돌 7) 사다리 8) 주님 9) 천사들 10) 특사, 전달자
- 11)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12) 석상을 세웠다 13) 16-19절을 읽어 보자 14)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다

7

감옥에 갇힌 요셉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본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공부 중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는지, 그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는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음 등이다. 성경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흥미롭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9, 40장

39장: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2.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3.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5.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6.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 생긴 사내이어서 7.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피는 것이었다. 8.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 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9.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10.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 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랴곤 아무도 없었다. 12.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3.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14. 그는 집안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고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 왔구나. 그 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15.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 둔 채 뛰쳐나갔다.” 16.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쟁겨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17.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
 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어요. 글썄 그 놈이 내 방에 들어 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18.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
 답니다.” 19.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던 말이어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2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22.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0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2.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3. 경호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4. 경호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 온지 여러 날이 지났다. 5.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7.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는지요.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다. 9.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도요.” 12.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5.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 올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17. 제일 윗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18.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9.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 나왔다. 21.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22.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

해설

본 반에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를 다룬다. 열명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들보다 요셉은 봉사 정신이 강하며 영특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그의 형들보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보다 더욱 위대해 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 즉 꿈이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축을 돌보고 있던 중 요셉이 찾아오자 그들은 그를 제거해 버리자고 결정했다. 처음에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그를 팔아넘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로 향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고, 또 다시 이집트 왕의 경호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요셉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정직했으며, 주님 또한 늘 그를 돌봐 주셨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화나게 하자 그녀는 남편인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을 신뢰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간수장은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두었다. 요셉의 꿈 풀이를 들은 시종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된 후 요셉을 잊었으나, 후에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이집트 마술사와 현자들이 풀어내지 못하자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파라오에게 요셉에 관해 아뢰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다.

파라오는 요셉을 현자라고 결론짓고 그를 자신 아래의 이집트 통치자로 임명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전 가족을 구할 수 있었다.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 수 있도록 초청했고 살기 좋은 비옥한 땅도 하사했다.

문답 정리

- *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파라오의 두 시종장들은 누구인가?
- * 왜 두 시종장들이 어느 날 요셉에게 왔는가?
- * 요셉은 두 시종장들에게 꿈의 해몽에 관하여 무엇을 말했는가?
- * 술잔을 드는 시종장의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 *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 * 요셉이 말해 준 꿈들의 해몽은 어떤 것인가?
- * 그 해몽은 어떻게 판명되었는가?
- * 요셉은 풀려나는 시종장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 * 그 시종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했는가?

질문 정리

- 1)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는가?
- 2)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어디로 끌려갔는가?
- 3)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 4) 그와 더불어 감옥에는 누가 있었는가?
- 5) 요셉은 두 시종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6) 술잔을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7) 빵을 구워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8) 두 시종장의 신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했는가?

질문의 답

- 1)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귀여워했고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2) 이집트
 3)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4) 파라오의 두 시종장 5) 꿈을 해석해 주었다. 6)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 7) 새들이 빵을 먹는 모습 8)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다. 9) 기억 못함

8

불붙은 떨기나무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과 본 과를 연관 지어 본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한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 가야함을 망각해 버리는 시험을 겪게 된 것을 본 과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주신 선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옳은 길, 즉 선택해야 할 길 대신에 편한 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롯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목도 예로 든다. 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옳은 것에 항상 고생이 뒤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장

3장: 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2.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3. 모세가 “저 떨기가 어떻게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4.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5. 하느님께서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6.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뵈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7.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8.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어라.” 11.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15.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17.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기로 작정하였다.’
 16.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 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22.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얻어 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탈리라.”

해설

요셉은 아주 큰 인물로 이집트에서 부상되어 왕 다음으로 가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의 가족은 기근이 일어나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 왔다. 그 때 그는 그의 형들을 용서했고,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하사했다. 그들은 기근이 끝난 후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야 했으나 이집트가 살기 쉽고 편한 나라처럼 여겨져 더 머물기 시작했고, 한 때는 번영하여 인구도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집트에는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차차 외국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증가하는 것에 분개하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힘들게 되었다.

그들은 약 200여년 후 그들의 고향과 더불어 그들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잊어 버렸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 중 모세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켜 설비해 놓고 계셨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파라오의 화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40년간 살았다.
- *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다.
- * 주님이 그를 부르신 곳이 바로 그 땅이다.
- *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주님의 음성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였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 모세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를 꽤히 승낙했는가?
- * 주님은 모세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재 확인시켜 주셨는가?
- *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는가?
- * 「여호와, 야훼, Jehovah」는 「나다, I am」에 대한 히브리어다.
- * 모세는 파라오를 설득해서 히브리인들을 가게 할 수 없으리라고 두려워했다.
- *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모세에게 주셨다.
- *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도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 * 그 후 모세는 주님께 기꺼이 순종했다.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 2) 그는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는가?
- 3) 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는가?
- 4) 그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5) 미디안이란 누구인가?
- 6)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가?
- 7)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산 근처에 있었는가?
- 8)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9) 주님은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 10)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모세는 그 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싶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의 궁전 2) 40년(사도행전 7:23참조) 3)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
- 4) 미디안 땅 5) 아브라함과 게투라의 아들 6) 40년 7) 호렘(시나이)
- 8)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불붙은 떨기 10)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인도함 11) No 12)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13) 은불이와 금불이 그리고 옷 등

9

마라와 엘림

머리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줄거리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순종했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생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한다. 이러한 광야생활 중의 실망과 불평은 구원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광야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시험에 든 상태를 상징한다고 한다. 즉,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한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고 험난함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기복”에 아주 친숙하다. “삶의 기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기복에도 적용된다. 본과는 “ups”으로 출발하나 “down”이 금방 뒤따른다. 그리고 또 다른 “ups”으로 끝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본과의 공부에 용이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5장

15장: 1.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 야훼는 힘 있게 나를 불드시어 나를 살려 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3.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더라. 5.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6.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습니다. 7.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독처럼 일어섰으며 바다 속 깊은 데서 물이 영졌습시다. 9.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11.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12.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아,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14.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15.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16. 덮쳐 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어라. 19.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노래를 메겼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2.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23.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24.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25.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 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27.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났을 때, 주님은 굉장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밤에 불기둥으로 변했다. 그들이 언제나 앞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던 것이다. 두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움직였고, 그들은 두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다. 그들은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 그것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

기둥들은 첫째로 그들을 홍해로 인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마른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도록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다. 당시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왔는데, 그들의 병거와 말들이 홍해 안으로까지 추격해 오자 바닷물이 합쳐져 그들을 삼켜 버렸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그 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 * 누가 노래하는 여인들을 이끌었는가?
- * 여인들은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가?
- * 소구는 탬버린에 속하는 악기이다.
- *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 *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마라(Marah)는 “쓰다(bitter)”라는 뜻이다.
- * 그들이 도착한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
- *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그들이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상상해 보자.
- * 대추 야자는 종려나무에서 열리며 동쪽 나라 사람들의 주요한 식품 중 하나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무엇에 의해 인도되었는가?
- 3) 홍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 4)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5)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누구인가?
- 6)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는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기 전 며칠간 광야를 여행했는가?
- 8)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9) 쓴 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인가?
- 10) 그들의 다음 번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 11)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질문의 답

- 1) 과일절 2) 구름 기둥, 불기둥 3) 물이 갈라짐 4) 노래를 불렀다
- 5) 미리암 6) 소구 7) 3일 8) 물이 쓴맛 이었다.
- 9) 마라 10) 엘림 11) 열 두 개의 샘,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

10

궤

머리말

본과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법률과 각종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여행 초기 석 달째에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정부 형태를 갖추었음과 그 형태가 그들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지속되며 오늘날의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막 안의 가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되어졌음과 그 재료들이 구해진 곳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출애굽기 12:35-36).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요구되어진 모든 재료들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랑 민족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훈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사료만을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5장 1-22절

25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3. 너희가 받아 들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4.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7.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8.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 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10. 그들은 아카시아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 높이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1. 순금판을 궤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도 고리 두 개를 붙여라. 13.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이 채를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궤를 들게 하고 15. 채는 고리에 꿰어 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8.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룩 돌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19. 거룩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룩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룩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20. 거룩들은 날개를 위로 퍼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21. 그 속죄판은 궤 위에 얹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 주리라.

해설

본문은 모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서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의 일부이다. 여러분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는가? 주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똑같은 장소에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은 언젠가 십계명을 자세히 배워야 한다. 십계명은 주님의 법들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지려면 순종해야 하는 법이다. 궤가 완성되고 두 돌판이 그 안에 놓여 진 후 궤는 성막의 가장 깊은 방에 놓였다. 깊은 방을 지성소라고 부른다. 이후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실 때 궤의 거룩들(cherubim) 사이로부터 말씀하셨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석 달 후 그들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해졌던 근처인 시나이 산에 도달했다.
- * 그들은 그 산 밑의 평지에서 야영했다.
- * 주님은 그 산 꼭대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다.
- * 그 후 모세는 산으로 부름 받아졌고, 백성을 통치할 많은 법들이 그에게 주어졌다.
- * 그 후 주님은 백성들이 예배할 성막의 건축 방법과 가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 *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궤이다. 궤에는 주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이 보관된다.
- *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궤는 무엇으로 칠해졌는가?
- * 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었는가?

* 궤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산꼭대기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2) 주님은 이밖에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3)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4) 그곳의 가장 깊은 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그 안의 가구는 무엇인가?
- 6)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7) 궤의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 8) 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 9) 주님은 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여러 가지 작은 법들 3) 성막
- 4) 지성소 5) 언약궤 6) 아카시아 나무
- 7) 덮개 8) 두 돌판(계명들)
- 9) 백성에게 말하시는 데에 사용

11

열 두 스파이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본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을 읽어본다. 그 후 레위기서의 일반 목차를 훑어보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기억한다. 이 후 민수기 10장 33-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적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3장, 14장

13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3.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4.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6.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7. 이싸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야갈, 8.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10. 즈불론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가띠엘,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띠, 12.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13.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 대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15.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1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은 모세였다.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 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 가 보아라. 18.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20.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21. 그들은 썬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살펴려고 그 땅으로 들어 갔다. 22.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하만, 세새,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 왔다. 24.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 왔다고 해서 그 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5.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 사십 일이 걸렸다. 26.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28.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29.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32.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 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14장: 1.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3. 야훼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4.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5.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6.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오 8.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 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0.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
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12. 나 이제 염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 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13.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14.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15.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 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6.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7.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18.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 주시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23.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그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25.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 광야로 떠나거라.”

26.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7.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28.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29.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덩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30.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31.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라 되리라. 32.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어야 한다. 34. 너희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35.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3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 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엄병으로 죽었다.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39.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40.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올라 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려고만 있을 터이냐?” 41.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했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42. 올라 갈 생각을 말아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 갔다가는 43.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44.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 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해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일 년간을 시나이 산 근처에서 머물렀다. 그 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의해 광야로 다시 인도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맹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겁 많은 열 명의 스파이들의 말을 믿었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이 결코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사 결정권이 없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라고 하셨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그들은 카데스라는 지역에 야영하도록 인도되었다.

- * 카데스는 거룩한 땅의 경계선에 가까운 곳이다.
- *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스파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 스파이들은 정탐한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했는가?
- * 그들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 * 스파이들 중 누가 다른 이들과 달랐는가?
- * 두 스파이는 무엇을 권고했는가?
- * 다른 스파이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 * 열 명의 겁쟁이 스파이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는가?
- * 백성들의 벌은 무엇인가?
- *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보상이 약속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시나이 산을 떠난 뒤 그들이 도착한 거룩한 땅 경계선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백성들은 누구를 파견했는가?
- 3)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4) 그들은 그 땅에 관해 어떤 보고를 했는가?
- 5) 열 스파이들의 결론적 충고는 무엇인가?
- 6) 어떤 두 스파이가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상기시켰는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한 충고에 따른 벌은 무엇인가?
- 9)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가?
- 10) 나쁜 충고를 준 열 스파이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 11)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해야 했는가?

질문의 답

- 1) 카데스 2) 열 두 스파이 3) 포도, 석류, 무화과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
- 5) 그곳 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해볼 수 없다. 6) 갈렙, 여호수아 7) 열 스파이의 충고 8) 40년간의 배회 생활 9) 20세 이하인 자, 갈렙, 여호수아
- 10) 재앙이 덮쳐 죽었다 11) 대략 38년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스토리로 다루기보다는 토의 형식의 진행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우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상기하면서 성경 스토리를 간략히 재고한다. 이에 따른 전체적 윤곽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기본이 될 것이다.

성서본문: 여호수아 1장

1장: 1.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3.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 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4.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헷족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7.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8.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9.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 간다.’” 12.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13.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 가 동족들과 함께 싸워라. 15.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 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16.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하겠습니다. 17.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18.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해설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광야 생활을 계속 이끌어 온 인물은 바로 모세이

다. 그들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때를 맞았다. 그들은 요르단 강 독에
진을 치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약속된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모세는 그들을 강 건너까지 인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
다.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이다. 그는 주님을 신뢰했던 두 스파이 중의
한 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므로 우리가 점령하려고만 하면 거룩한 땅을
차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은 카데스에서 무엇을 했었는가?
- * 열 두 스파이들은 어떤 보고를 했는가?
- *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 * 그들의 별은 무엇이었는가?
- * 열 두 스파이 중 두 스파이들의 의견은 어떠했는가?
- * 두 스파이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 *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중 각종 전투의 사령관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다.
- * 본문에서 주님이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 *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 *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 중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질문 정리

- 1) 열두 명의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 왔는가?
- 2) 그들이 그곳에 관해 보고한 것 중 좋은 것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 나쁜 것은 무엇인가?
- 4)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열 명의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5) 나머지 두 스파이는 무엇을 충고했는가?
- 6) 주님을 신뢰한 두 스파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9)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10)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야영지는 어디였는가?
- 11)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12) 여러분은 전 과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것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 13)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 14) 어떤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터전을 잡았는가?
- 15) 그 지파들이 정착하기 전 먼저 처리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열매들 2)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 3)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산다.
- 4)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5)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 6) 갈렙, 여호수아 7) 열 명의 스파이의 충고
- 8)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9) 40여년 10) 모압 평야
- 11) 여호수아 12) 좋은 충고를 한 스파이, 또는 군대 사령관
- 1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14) 르우벤, 가드, 므나세 반쪽 지파
- 15) 다른 지파가 정복하는 것을 먼저 도왔다.

13

아이성의 포획

머리말

먼저 2-6장을 읽고 간략히 재고한 후 본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실이다.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이 우월하여 획득된 승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다. 예리고성을 점령하되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필두로 본과를 시작해 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7장, 8장

7장: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중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2.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 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 가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 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리하여 군대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5.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삼십 육 명이나 죽었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6.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7.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8.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10. 야훼께서 야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흠뻑다가 자기 행낭에 숨겨 두었다. 12.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15.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17.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18.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중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21.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 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23.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야훼 앞에 놓았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 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찌다가 내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26.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렬한 분노가 걸렸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8장: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2.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3.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 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췌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5.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6.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 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피어내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8.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10.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11. 그를 좇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 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12. 그는 오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13.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14.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체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16.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17.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을 비워 두고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팔을 내뺐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 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체하던 부대가 돌아 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21.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22.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짓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23.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 왔고 24.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25. 그 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해서 모두 만 이천이나 되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뺐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27. 그 성에 있던 기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 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곳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29.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30.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31.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야훼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 둔 모세의 법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없이 모두가 야훼의 계약케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케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집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34.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35.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 마디도 빠지 않고 낭독하였다.

해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 접경에 도착하여 스파이를 보내 그곳을 정탐하도록 했다. 스파이들은 그곳에 성벽이 있는 성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르단강을 건넜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듯이 요르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다.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점령한 첫 성은 예리고성이었다. 그들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주님은 사제들이 멘 케를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그 성을 도는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주님은 그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 은, 동 그리고 철을 제외하고는

예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되어 졌다. 또 금, 은, 동 그리고 철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었다.

이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포획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 성의 서편, 즉 베델 쪽 근처에 복병을 배치하여 숨겨 놓았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나머지 용사들을 이끌고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 나섰다. 아이성의 군대들이 그들을 맞서려고 성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도망하는 체 했고, 아이성의 군대는 그들을 성 밖 멀리까지 추격했다. 그러자 매복했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뛰어나와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그 후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은 뒤돌아서서 추격대를 공격했고 무찔렀다. 그들이 이 일을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 27장 1-8절을 읽어 보자.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으므로 기억되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타인이나 주님께 그 원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검토해야 한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그들은 모두 순종했는가?
- * 누가 불순종했는가?
- * 아간은 무엇을 감추었는가?
- * 불순종으로 인해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무엇인가?
- * 백성들은 나쁜 짓을 한 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 법에 의해 아간과 그의 전 가족은 죽임을 당했다.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 성을 정복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가?
- 3) 이스라엘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 받았는가?

- 4) 그들이 공격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성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 6) 공격해 들어간 군대가 도망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그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9) 범죄자는 누구였는가?
- 10) 그는 무엇을 착복했는가?
- 11) 어떤 벌이 그에게 내려졌는가?
- 12)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얼마의 군대를 사용했는가?
- 13) 그는 군대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 14) 아이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15)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질문의 답

- 1) 예리고 2)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3)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
- 4) 아이 5) 작은 군대를 파견했다. 6)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하느님께 실패한 탓을 돌렸다.
- 7)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8) 체비뽑기 9) 아간 10) 외투, 금, 은 11) 돌로 치고 불을 질렀다. 12) 전 군대를 동원했다. 13) 일부 군대를 매복시킴 14)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15) 제단을 쌓고 법을 새기고 읽었다.

14

판관 기드온

머리말

우선 판관 시대의 요지인 판관기 17장 6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으로부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과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열조시대(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판관시대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왕 시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판관들이란 지방적이며 일시적인 지도자들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6, 7장

6장: 1.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칠 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2.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 와
4.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 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았다. 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떼처럼 몰려 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들어 와 온 땅을 망쳐 버렸다. 6.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야훼께 부르짖자, 8.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9.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야훼요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나쎄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17.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다녀 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돌아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19.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20.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21.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 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보았군요!” 23.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4.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젤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25.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일곱 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네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은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28.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진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다.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 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3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했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 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 냈는데 어찌 그냥 뒤 두겠소?” 31. 요아스는 둘러 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요?” 32. 그 날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3.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강을 건너 이즈르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34.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빨나팔을 불어 아비에젤 일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

다. 35.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나쎄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나쎄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즈불룬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 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려는 줄로 알겠습니다.” 38.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 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39. 기드온은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4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롯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편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스할 테니 말이다. 3.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 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할 수 없다.” 5.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쪽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워라.” 6.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7.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렀다. “나는 물을 훔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8.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빨나팔을 거두어 들고는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9.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로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네 손에 붙였다. 10.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11. 그리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접근해 가보니,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14.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15.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 와 일렀다. “일어나거라.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빨나팔 하나와 햇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17.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 기드온이 자기 부대 일백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햇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21.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 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벳시타에 이르렀고 더러는 타뻏 건너편 아벨므홀라 냇가에 이르렀다. 23.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나쎄 지파에서 불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24.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 전갈을 보냈다.“내려 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무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몰려 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무들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렘과 즈엡을 사로잡았다.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오렘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 전해졌다.

해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은 미디안족이다.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인들의 농사를 망치게 했고 가축조차도 한 마리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분에게 애걸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구해주셨다. 주님은 하나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냈고, 그 천사는 군사를 일으켜 미디안과 싸우라고 기드온에게 말했다. 기드온은 불붙은 가시덤불 앞에 있던 모세와 같이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못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약하거나 무능력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요점 및 질문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하에 전 땅을 정복했다.
- * 전 땅은 제비로 뽑아 할당되었다.
- * 그들은 실로, 즉 세겜과 베델 사이인 곳에 성막을 세웠다.
- * 그들은 새로운 고향에 정착하여 삶이 윤택해 지면서 주님을 잊기 시작했다.
- *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들에겐 큰 지도자가 없었다.
- * 그들의 적들은 다시 강해져 그들을 괴롭히며 때로는 공격해 왔다.

- *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떠올렸고, 주님은 그 때마다 승리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
- * 일으켜 세운 이 지도자를 판관이라 불렀다.
- * 판관은 전 국토의 사람을 통치하지 않았고 각기 특별한 일만을 수행했다.
- * 기드온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조심성 있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 * 주님은 기드온과 함께 할 것과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입증해 주셨다.
- * 그래서 기드온은 삼만 이천 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었다.
- * 주님은 왜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가?
- * 누가 처음에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는가?
- *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 * 기드온은 군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렀는가?
- * 그들은 어떻게 고향쳤는가?
- * 미디안족에게는 무슨 변이 생겼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은 성경의 무슨 책인가?
- 2) 판관이란 누구인가?
- 3) 지도자적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판관시대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5)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6)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 7)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기드온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에게 어떤 확증을 요구했는가?
- 10) 그는 어떤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했는가?
- 11) 주님은 왜 군대의 수를 축소하셨는가?
- 12) 처음 돌려보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 13)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었는가?
- 14) 결국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 15) 그들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졌는가?
- 16) 공격 작전은 어떠했는가?
- 17)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질문의 답

- 1) 판관기(사사기) 2) 일시적이며 지방적인 지도자들 3) 판관은 전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다. 4)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 5) 기드온 6) 므나쎄 7) 미디안, 아말렉 8) 스스로 겸손했다 9) 양털뭉치와 이슬 10) 아셀, 즈불룬, 납달리, 므나쎄 11) 하느님이 승리를 안겨 주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12) 두려움이 있었다. 13) 물을 마시는 태도로 14) 삼백 명 15) 횃불, 단지, 나팔 16) 적을 포진하고, 단지를 깨고 고향을 지름 17) 혼란에 빠지게 해서 승리함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주님에 대한 정규적인 예배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며 인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와 아들들의 죄를 보면, 예배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충족 그리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 타락해 감을 볼 수 있다.

성서본문: 사무엘상 3장

3장: 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2.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3.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5.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 와 자리에 누웠는데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7.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8.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12.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13.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16. 그러는데 엘리가 “애, 사무엘아!”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하고 대답하자. 17.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 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 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 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하고 다그쳤다. 18.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21.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둬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 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해설

판관기 시대 말기쯤 한나라고 하는 아주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큰 유대 명절에 한나와 그녀의 남편은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곤 했다. 그녀는 성막에 갈 때마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또한 주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분의 성전에 바치겠다는 약속도 했다.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Samuel)이라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이 들으셨다”이다. 사무엘이 나이가 조금 들자 그녀는 그를 실로에 데리고 가 제사장 엘리에게 주어 성막을 관리하는데 헌신하도록 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그에게 가르쳤다. 엘리는 선한 사람이었으나 늙어 눈이 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성막의 번제나 예배 의식의 대부분을 그의 두 아들에게 맡겼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신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를 행하는 우리를 도우신다. 한나가 그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준다.

사무엘이 성장한 후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피살되었고, 엘리는 그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죽었다.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예언자이며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판관이었다.

요점 및 질문

- *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사제였으나 그들은 아주 사악했다.
- * 그들은 주님에게 헌납되어야 하는 제물을 그들 자신을 위해 착복했다.
- * 주님은 이에 대해 엘리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는 아들들의 악행을 멈추게 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다.
- * 주님은 몇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 * 사무엘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 * 마지막으로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질문 정리

- 1) 마지막 환관은 누구인가?
- 2)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대 사제는 누구였는가?
- 3) 사무엘은 왜 성막으로 데려와졌는가?
- 4)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엘리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엘리는 왜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못했는가?
- 7)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 9)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전 주님은 몇 번 그를 부르셨는가?
- 10) 주님은 엘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는가?
- 11) 본문 이 후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리 3) 어머니가 주님에게 서약했기 때문
- 4) 엘리를 섬겼다 5) 주님께 드릴 예물을 착복했기 때문
- 6) 너무나 나약했다 7)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다.

- 8)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9) 세 번
10)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잃게 될 것이다. 11) 예언자

16

사울의 성급함

머리말

사무엘의 인격과 직무는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사무엘과 사울의 직책의 차이점과 사무엘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 사울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기간까지 실제로 존재 했었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그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요소인 선택의 자유에 근원하고 있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3장

13장: 1...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므마스라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불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불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4.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불레셋 수비대를 쳐서 불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5. 블레셋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올라 가 거기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7.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칠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10.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1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다가 블레셋군은 믹마스에 집결해 있어 12.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블레셋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1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 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 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육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군과 대진하였다. 17. 블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18.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19.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1.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22.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23. 불레셋군의 전초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해설

주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사울이 키가 여느 누구보다도 커서 매우 기뻐했다. 성경에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전투 용사들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기뻐했다. 사울은 쉽게 군대를 소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왕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은 외모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울은 강하고 키가 장대하며 용감했지만 슬기롭지 못했다. 사울은 사무엘이 여전히 주님의 예언자로 있었으므로 사무엘의 분부를 따라야 됨을 알고 있었다.

질문 및 요점

- * 누가 마지막 관관이 되었는가?
- * 그가 마지막 관관이 된 이유는 백성들이 다른 국가들처럼 될 수 있도록 왕을 요구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 주님의 예언자로 있어 왔다.
- * 사울은 쉽게 군대를 소집할 수 있었고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다.
- * 어떤 사건이 불레셋을 화나게 했는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가라고 했고, 사울은 그곳에서 사무엘을 칠일동안 기다렸다. 사무엘은 그곳에 오도록 되어 있었고 번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다.
- * 사울은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알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함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칠일 동안 기다렸다.

- *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칠일 췌에 사울은 무엇을 했는가?
- * 여러분은 순종함을 잊고 성급하게 무엇을 해치운 경험이 있었는가?
- *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 * 사울은 어떤 변명을 했는가?
- * 사무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에 필요한 창이나 칼을 갖지 못했는가?

질문 정리

- 1)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 2)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 3)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 4) 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 5) 사울이 처음 정복한 적은 어떤 적입니까?
- 6) 그 다음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 7) 이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 8) 무엇이 블레셋을 성나게 만들었습니까?
- 9)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 10)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 11)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12) 사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13) 그는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 14)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질문의 답

- 1) 전쟁을 이끌 지도자 때문에 2) 사울 3) 제비를 던져서 4) 키가 크고 강건했기 때문에 5) 암몬족 6) 블레셋족 7) 블레셋의 군사가 더 막강했다 8) 요나단의

공격 9)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 직업을 허용치 않음으로 10) 길갈 11) 칠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라 12) 자기 스스로 제물을 바쳤다 13)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므로...”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17

다윗과 골리앗

머리말

말씀은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개의 과에서만 각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왕의 통치에 따라 있게 된 사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세 왕들은 성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다뤄지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 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사울)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되기 마련이다. 사울의 실패는 성급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판단이 주님의 것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겨버리는데서 근원한다. 다윗은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면을 보는 것, 즉 동기를 살펴며 자신의 필연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그분께 절실히 도움을 간구하는 면을 지닌다. 솔로몬도 다윗과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리는 우리의 심정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한 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와 무게를 달리한다. 세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하고 각 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본문: 사무엘상 17장

17장: 1.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땀에 진을 쳤다. 2.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3.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 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 6.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받이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매고 있었다. 7. 그 창대는 베틀 용두머리만큼 굽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육백 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번을 앞에 세우고 8.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향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줄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 보내라. 9.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11.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2.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랏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팔 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13.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6.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볏은 밀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18. 이 치즈 열 개는 그 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19.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군과 싸우고 있었다. 20. 이튿
 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 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울리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22.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 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23.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 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25.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
 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땀해 주는 말을 듣고,
 26.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준 다구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27.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리이러하게 해 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 주었다.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은 “그저 물어 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하고는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 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달련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를 한 마리라
 도 물어 가면 35. 소인은 한사코 되쫓아 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 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불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욱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7. 계속해서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 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41. 불레셋 장수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 왔다. 42. 불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보고 불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43.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리고 불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올려메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나 다윗은 불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욱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아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47.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불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 49.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51. 다윗은 달려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블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아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블레셋군의 시체가 덩굴게 되었다. 53.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 와서 블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54.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다. 55.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이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요?”하고 물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56.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오”하고 일렀다. 57.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블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58.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였는가?
- * 왜 사람들은 첫 왕을 좋아했는가?
- * 누가 사울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었는가?
- * 사울의 어떤 점이 나쁜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사울은 다윗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무엇을 제공해 주었는가?
- * 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는가?
- * 다윗이 가진 무기란 무엇인가?

- *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 *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쳐 죽였는가?
- * 다윗은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며, 주님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전했다는지 기억하는가? 다윗은 목자였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세월이 걸렸다.

블레셋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센 거인 장수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진지 밖으로 걸어 나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누구라도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울러메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 대적하지 못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는 군대에 소집되어 있던 세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음식을 싸서 다윗을 보냈다. 다윗은 어떤 이스라엘인도 골리앗과 대결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대결하겠다고 간청했다. 다윗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느 군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사자나 곰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채어갈 때 그분이 늘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다윗은 어디에 살았는가?
- 2)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3)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서 대치했는가?
- 4) 블레셋 장수는 누구인가?
- 5) 골리앗의 용모는 어떠한가?
- 6)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
- 7) 다윗은 왜 군인이 집결한 싸움터에 오게 되었는가?
- 8)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 9)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10) 왜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11)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12)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지게 했는가?
- 13)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목자 3) 엘라 골짜기(느티나무 골짜기) 4) 골리앗 5) 키가 9피트였고 무거운 무장을 했다 6) 불레셋 장수와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 보내라 7) 전투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8)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9) 하느님을 신뢰했다 10) 그의 무장을 입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11) 돌팔매 끈, 다섯 개의 자갈 12) 돌팔매질을 하여 쓰러트렸다 13) 골리앗의 칼

18

솔로몬의 영화

머리말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9장, 10장

9장: 1.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2. 야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4.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 준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5.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리라.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6.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8.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9.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흘러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10.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11.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왕에게 떼어 주었다. 12.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13.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14. 히람은 금 백 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왕에게 보냈다. 15. 솔로몬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하술, 므기또, 게젤을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성을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젤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벳호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18.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말을 다시 세웠다. 19.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20.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24.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 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25.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일 년에 세 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6. 솔로몬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27.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28.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실어 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10장: 1.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2.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3.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4.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5.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않으며 6.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7.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8.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
 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9.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
 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0. 여왕은 금 백 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두 번 다시 받아 보지 못하였다.
 11. 오벨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12.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뜰을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
 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13.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4. 일 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육백 육십 육 달란트나 되었다.
 15.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16.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7.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삼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18.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19. 그 옥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21. 솔로몬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2. 또 왕은 다르싯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싯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23.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24.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

25.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7.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28.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29.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에 은 백 오십 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해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용사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소탕했다. 그는 죽기 전 아들 솔로몬이 왕을 계승하도록 기름 부었다. 솔로몬이란 이름이 평화를 의미하듯이 그는 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 솔로몬의 꿈에서 주님은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주님께 “이해력이 있는 심정”을 갖게 해달라고 소원했다. 주님은 그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 채워 주셨고, 부유함과 장수하는 삶도 주셨다. 솔로몬은 상아로 대형옥좌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의 사자가 서 있었다. 솔로몬은 상선대도 가졌고, 상선대는 다른 나라로부터 금과 은을 실어 왔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는 널리 알려져서 여러 나라의 왕과 여왕들은 그의 보물들을 구경하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왕했다.

질문 및 요점

- * 솔로몬은 케를 안치할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다.
- * 그는 다른 건축물과 도시들도 건설했다.
- *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
- * 그의 친구 히람왕은 레바논의 전나무를 제공해 주었다.
- * 본문에는 특별히 어떤 여왕이 내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 * 왜 그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 * 그 여왕은 어떤 선물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는가?
- * 그 여왕은 솔로몬과 대담한 뒤 뭐라고 평가했는가?

질문 정리

- 1) 다윗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2) 다윗 후의 왕은 누구인가?
- 3)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4)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 5) 주님은 그가 간청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는가?
- 6) 솔로몬은 다윗에게 금해진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
- 7) 그밖에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8) 누가 솔로몬에게 송백나무와 숙련공을 공급해 주었는가?
- 9)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10) 솔로몬의 첫 아내는 누구인가?
- 11)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창설했는가?
- 12) 어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왜 그녀는 그를 방문했는가?
- 13) 그녀는 솔로몬과 대담한 후 어떤 말을 했는가?
- 14) 솔로몬의 옥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15) 본문에는 왜 금에 관한 언급이 많은가?

질문의 답

- 1) 40년 2) 솔로몬 3) 평화 4) 지혜 5) 부와 영예 6) 성전 건축
- 7)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성 8) 히람 9) 20개의 성읍 10) 파라오의 딸
- 11) 상선(商船)단 12) 세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13) 들은 것보다 더 슬기롭다
- 14) 여섯 계단, 열 두 사자, 금을 입힌 상아
- 15) 금은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머리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와 이스라엘 왕국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9장

19장: 1.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2.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3.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덩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덩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7.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다. 9.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 왔다. 13.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걸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남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리라.” 19.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열 두 쌍에 거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켤 거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겂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 보게. 내가 어찌 작별인사를 금하겠는가?” 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해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한 예루살렘의 남쪽 영역은 유다왕국이라고 불렸다. 북쪽 영역에 속한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렸으며, 여로보암이 왕이었고 세겜에 수도를 두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사악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사악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주님은 예언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주님이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백성에게 입증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이게 되었다.

문답으로 공부

- * 이세벨은 바알 예언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 *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어디로 피신했는가?
- * 주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 * 호렘은 시나이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시나이산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
- * 주님은 이 산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세 가지 큰 징조를 보여 주셨는가?
- * 세 가지 징조 후 무엇이 왔는가?
- * 여러분은 자신 안에 들려오는 작고 여린 음성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

- *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엘리야 후 누가 예언자가 되었는가?
- * 엘리야는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발견했는가?
- *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도록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 * 엘리사는 무엇을 물었는가?
- *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제공했는가?
- * 엘리야가 살아 있는 동안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건립한 세 건축물은 무엇인가?
- 2)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솔로몬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 4) 분열된 두 왕국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리었는가?
- 5) 분열된 왕국은 각각 무엇을 그려주는가?
- 6) 이스라엘에 어떤 승패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 7)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 8) 그 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 9) 본문에서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10)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 11)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 13) 그 다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 14)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과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15)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6)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셨는가?
- 17) 이러한 징조 뒤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 18)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가?

- 19)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20)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과 두 궁전 2) 왕국이 갈라졌다 3) 우상숭배, 무거운 세금
 4) 이스라엘, 유다 5) 인간의 마음이 심정과 지성으로 구성된 모습
 6)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숭배했다 7) 아합 8) 이세벨 9) 엘리야
 10) 그가 바알 예언자들을 살해했다 11) 브엘세바
 12) 천사들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13) 호렙 14) 시나이산, 십계명 15) 주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 주셨다
 16) 아니다 17) 조용하고 여린 소리 18) 주님께 신실한 자가 칠천 명이나 있다
 19) 새 왕들을 기름 붓고 후계자를 세워라
 20)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다.

20

히즈키야 왕과 이사야

머리말

본문을 통해 유다왕국의 특수한 성격을 알아본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떠올리면서 공부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은 사악했다. 반면,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하는 히즈키야왕의 이야기

로 그려진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0장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쓰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2.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3.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4.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즈키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낮게 해 주리라. 삼 일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6. 내가 너의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 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즈키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삼 일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10.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2.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13.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14.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오.” 15.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16.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19.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물을 끌어 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즈키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나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해설

다음 질문 및 요점을 토대로 공부한다.

- * 이스라엘 왕국에 보낸 위대한 예언자는 누구인가?
- * 누가 그 예언자의 승계를 받았는가?
- * 엘리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약해져 갔다.
- *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셨다.
- *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되돌아오지 못했다.
- * 아시리아인들은 동쪽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비어있던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도록 했다.
- * 신약 성서의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강제 이주된 외국인의 후손들이다.
- *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당시 유다의 왕은 히즈키야였다.
- * 히즈키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 * 이사야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 히즈키야는 무슨 징조를 요구했는가?
- * 히즈키야의 병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 누가 친구인 체하고 히즈키야에게 왔는가?
- * 히즈키야는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 * 이사야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히즈키야는 유다 왕 중에서 선왕에 속한다. 그는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무척 노력했다. 그는 백성들이 세워 놓은 우상들을 파괴했고, 선조들이 하지 않은 일도 과감히 수행했다. 즉, 그는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이란 우상을 세워두기 위한 작은 언덕이다. 산당이 없어지면, 백성들은 우상을 세우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히즈키야는 심한 종양을 앓게 되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살기를 위하여 주님께 갈구했다.

우리는 흔히 건조된 무화과를 먹는다. 건조된 무화과는 나무에 열려 있는 생 무화과와는 맛이 다르다. 거룩한 땅에는 많은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무화과를 접한다. 무화과는 그 안에 아주 많은 씨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씨들을 먹을 수 있다.

아하즈의 시계관은 오늘날의 정원에 세워 둔 것과는 조금 다른 해시계판이다. 그의 해시계판은 막대기에 일종의 계단을 장치해 놓은 것으로, 태양이 움직일 때 막대기의 그림자가 계단 위로 움직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어둡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계가 없던 당시 시간을 알려주는 왕의 방법이었다. 그림자는 언제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히즈키야왕은 그림자가 뒤쪽으로 움직이면,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기적은 히즈키야왕에게 병을 이기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2) 그 왕의 초기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누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었는가?
- 4) 누가 히즈키야왕 시대 때에 예언자였는가?
- 5) 히즈키야가 심히 아프자 이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히즈키야는 무엇을 했는가?
- 7) 이사야는 주님이 주신 어떤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가?
- 8) 히즈키야의 병명은 무엇인가?
- 9)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무엇으로 낮게 해주었는가?
- 10)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1) 어떤 나라에서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 12) 히즈키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 13) 그래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4)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질문의 답

- 1) 히즈키야
- 2)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3) 주님의 천사 4) 이사야
- 5)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6) 기도했다
- 7)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 8) 종기 9) 무화과로 만든 교약
- 10)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바빌론 12)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13) 어리석은 짓을 했다 14) 북쪽의 방어벽이 사라진 셈이다

21

시편에 관하여 (2)

머리말

시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주님에 의해 영감 된 노래이다.

성 서 본 문: 시편 19편

- 19편: 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숨씨를 일러줍니다.
2.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4.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은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7.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8.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11.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2.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13. 일부러 범죄 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14.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해설

우리는 기분 좋을 때나 행복할 때에 노래 부르게 된다. 우리가 행복할 때 노래 부르면 우리의 행복이 쏟아져 나와 다른 사람도 우리가 행복함을 알게 된다. 즉,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래들로 구성된 책을 시편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시편이란 찬양의 노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잘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들이라고 한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고 우리가 잘 살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 주셨으며,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만드셨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 때로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갖춰져야 더 나은 삶이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종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간추린 요점

- *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 * 홍해를 건넌 뒤 모세가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기억하는가? 그 노래는 주님께 감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이다.
- *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기록된 것이며,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 역시 주님의 영감으로 이뤄진 것이다.
- *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도 불린다.
- *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시편은 “음악가, 다윗의 시”라고도 불린다.
- *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별들 아래 앉아 있는 동안 주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을 놓아 주셨던 것이다.
- *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도록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해 볼 때 시편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
- * 우리는 주님의 길이 언제나 올바른 길임을 알고 있다.

- * 우리가 많은 결점을 가짐도 기억할 것이다.
- *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기도해야 한다.
- * 시편 19편을 다시 읽어보자.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했는가?
- 2) 시편이란 무엇인가?
- 3) 주님은 시편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4) 많은 시편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
- 5)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6)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7) 시편 19편 1절은 무엇인가?
- 8) 그 첫 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시편은 주님의 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 10) 주님을 두려워 함 혹은 경외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질문의 답

- 1) 시편서 2) 노래 3) 시편은 주님께 관해 말했다 4) 다윗 5) 찬송
- 6) 주님께 관해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 7)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 8)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 10) 주님을 언짢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11) 의를 행함 속에 행복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 (2)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대 예언자, 성경에서 이 책들의 위치, 이 책들의 역사적 시기와 예언자들의 직분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예언의 의미와 영감에 따라 예언자가 말했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예레미야 1장

1장: 1.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삼 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일 년 되던 해의 오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5.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6.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7.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9.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둔다. 10.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1.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숭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2. 야훼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13.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솥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4. 야훼께서 이르셨다.“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5.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 와서 예루살렘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16.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17.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 주리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돛담처럼 세우리니, 19.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해설

주님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백성들에게 당신을 대변할 사람을 선택해 오셨다. 주님은 때로 선발된 사람들의 속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뵈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목소리는 들어 왔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만을 말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그들 스스로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들을 예언자라고 명한다.

주님은 예언자들에게 당신이 내린 말씀들을 받아쓰도록 하셔서 사람들이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다.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쓴 이들은 예언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예언자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긴 책을 쓴 네 명의 예언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과 다니엘이다. 그들을 대 예언자라고 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아 쓴 책의 부피(길이)가 크기 때문이다.

질문 및 요점 정리

- *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판관이었다.
- * 이스라엘 왕국을 건져내려고 노력한 두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 히즈키야에게 보내진 예언자는 누구인가?
- * 예레미야는 이사야의 뒤를 이어 약 일세기 동안 유다에서 예언했다.
- * 예레미야는 누가 유다를 통치할 때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 주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불렀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어떤 두 환상을 그에게 보여 주셨는가?
- * 당시 유다는 멸망 직 전 이었다.
- * 당시 백성들은 아주 악하여 예레미야 예언의 대부분은 꾸지람이나 경고였다.
- *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해 준 소식들이 모두 나뻐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
- * 자신의 입을 통해 말해진 예언이 성취됨을 본 자는 예레미야뿐이었다.
- * 그는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광경을 보았다.
- * 그 후 그는 예레미야서와 애가서를 썼는데, 애가서는 5개의 슬픈 시로 구성되어 있다.
- * 바빌론왕이 남겨둔 가난한자들 중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갔다.
- * 그 때 그들은 예레미야까지도 억지로 데려 갔다.
- *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의 일부는 이집트에서 쓰였다.
- * 두 개의 다른 대 예언서는 에제키엘과 다니엘서이다.
- * 두 예언자는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 가운데서

예언 했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구했는가?
- 2)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
- 3) 4개의 대 예언서는 무엇인가?
- 4)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 5) 예레미야는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6)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8) 주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예레미야가 가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10)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1) 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12)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3) 예레미야는 어떤 비극을 목격했는가?
- 14) 애가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5)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예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 16) 그는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더 예언했는가?
- 17) 그는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18)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19) 그들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 2)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 3)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4) 히즈키야왕의 시대 5) 요시아왕의 시대
 6)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7)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 8) “뿔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9) 감복송아 가지 10)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켜보리라” 11)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 12)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3) 바빌론의 침공 14)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함 15) 유다왕국 16) 이집트 17) 그의 의사와는 달리 반역적인 백성들에 의해 끌려감 18) 바빌론 19) 포로로 끌려감

23

에제키엘의 환상

머리말

대 예언서의 배경을 재고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4권의 대 예언서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직무와 네 권의 책을 대(Major) 예언서라고 이름 한 이유도 알아본다.

성서본문: 에제키엘 1장

1장: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밭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보자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밭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4.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놋쇠 같은 것이 빛났다. 5.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6.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이었다. 7.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8.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9.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0.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11.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12. 돌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3.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햇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14.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였다. 15.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 네 짐승 옆 땅바닥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16. 그 바퀴들은 넷 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17.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8. 그 네 바퀴마다 불쑥 솟은 데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19.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20.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1.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2.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있었다. 24. 짐승들이 나느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함소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25.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26.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27.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28.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 왔다.

해설

바빌론의 왕이 유다왕국을 정복했을 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기 원치 않았으므로, 강제이주는 그들에게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땅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 그 땅에서 살고자 하면 주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함을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배워야 했다. 주님은 그들이 포로 신세가 되기 전 예언자들을 보내 거듭하여 경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해주시듯이 당시에도 그러셨다. 주님은 새 예언자 에제키엘을 보내 그들이 보다 나은 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면 머지않아 고향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려 주셨다. 에제키엘은 사제중의 한사람으로, 바빌론으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틈에 끼여 있었다. 주님은 그가 바빌론에서 거주한지 5년 후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에게 메시지와 굉장한 환상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며, 때로 꾸었던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꿈속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환상은 하나의 꿈과 같으나 환상은 꿈과 달리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질문 및 요점

- * 성경에 있는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 * 네 권의 예언서를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책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 *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예언했다.

- *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백성들이 포로가 된 후 바빌론에서 예언했다.
- * 에제키엘은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았는가?
- * 그는 제 10장에서 그의 환상에서 본 것과 같은 생물을 거룩들(cherubim)이라고 부른다.
- * 궤 위에 있는 거룩들의 생김새를 기억하는가?
- * 그 생물은 어떤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 * 그 생물 옆 땅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 22-28절을 읽어 보자.
- * 에제키엘은 그 생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마지막 절을 보면, 보좌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아주 오랜 후에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환상을 가졌는데, 이는 계시록 제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 * 에제키엘의 환상은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에 있었으나 언젠가 고향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선한 백성들에게 안겨 주었다.
- * 에제키엘의 환상은 주님이 백성들 가까이에 계셔서 돌보고 계심을 에제키엘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질문 정리

- 1) 4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2)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3)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4) 에제키엘은 예언의 직분 외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5)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 6) 주님은 그가 예언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7) 그가 본 생물은 몇 이었는가?
- 8) 생물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가?
- 9) 생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 10) 생물들의 다리(발)는 어떠하였는가?
- 11) 생물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2) 생물은 자기 옆 땅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바퀴들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 14) 날개 소리는 무엇 같았는가?
- 15) 에제키엘은 생물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 16) 옥좌 위에 누가 계셨는가?
- 17) 에제키엘은 후에 이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18) 거룩들에 관한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질문의 답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유다 3) 바빌론 4) 사제 5) 그발 강가에서 6) 환상 7) 넷 8)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0)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돛쇠처럼 윤이 났다 11) 사람의 손 12) 바퀴 13) 생물과 더불어 움직였다 14)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탈소리처럼 요란하였다 15) 옥좌 16) 주님 17) 거룩들 18) 에텐의 동산, 증거궤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머리말

본과에서는 예언서를 탐사할 것이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과 성경에서 예언서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흐름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요엘 4장 9-20절 (개역 성경 3:9-21)

4장: 9. “너희는 못 민족을 불러 전쟁을 선포하여라. 장사들을 불러 모으고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쳐 올라오너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11. 그리고 빨리 오너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그리로 모여라.” 야훼여,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 주소서. 12. “못 민족은 떨쳐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낫을 대어라. 13.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술틀이 찼다. 독이 차 넘친다. 못 민족의 악이 이토록 극에 달하였다.” 14.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둥하실 날이 다가 왔다.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다. 16.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함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17.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느님으로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는 줄을. 예루살렘은 성소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리라.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19. 그러나 이집트는 썩밭이 되고 에돔은 허허벌판이 되리라. 억울한 유다 백성의 무고한 피를 쏟고 어찌 벌을 면할 수가 있으랴? 20. 내가 그 피 값을 보상하리니 아무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해설

앞서 우리는 대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그리고 다니엘 을 공부했다. 이들 네 권의 책은 성경에서 긴 책에 해당되는데, 성경을 열른 들추어봐도 각 책의 부피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본문 14절을 읽어 보자. “Multitudes(군중)”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뜻하고, “Decision(결정, 판결 혹은 타작수레)”이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마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Valley of decision (판결(결정) 골짜기, 타작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정의 골짜기란 우리가 올바른 것이든 혹은 잘못된 것이든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네 예언서와 더불어 열 두 권의 소 예언서가 있다.
- * 소 예언서는 그 내용이 짧아서 두루마리 하나에 다 적힐 수 있었다.
- * 그 책들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
- * 각 책의 이름을 성경 목차에서 살펴보자.
- * 처음 책이름과 마지막 책이름만이라도 기억하도록 하자.
- * 본과에서 공부한 요엘서를 기억하자.
- *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요엘서 첫 장 첫 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 * 요엘도 예제키엘처럼 자신의 말이 주님께 의해 주어졌다고 말했다.
- *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빠져 버린 슬픈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 * 그 후 그는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재난을 경고했다.

- *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 *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한 이들을 아껴 두셨다가 그분의 교회를 위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 * 결정의 골짜기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의 삶을 뜻한다.
- * 우리는 늘 정의와 불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결정(판결)을 하게 된다.
- *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쪽을 결정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 * 주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을 상기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2)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3) 왜 소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4)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 5) 우리는 그 책들이 영감된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 6) 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 7) 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8) 요엘서는 소 예언서의 몇 번째 책인가?
- 9)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요엘은 우리의 심정 속의 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 11) 그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불렀는가?
- 12) “결정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타작 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4) 주님의 날에 선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5)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2) 열 두 권
- 3) 각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
- 4) 구약 성서의 맨 끝부분
- 5) 각 책 모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 6) 호세아
- 7) 말라기
- 8) 두 번째
- 9) 3장(공동번역 4장)
- 10) 해충
- 11) 주님의 날
- 12) 우리가 죽을 때
- 13) 우리의 일상생활
- 14) 지옥
- 15) 천국
- 16) 우리가 스스로 매일 선택하여 영원히 지니게 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25

요나와 큰 물고기

머리말

먼저 소 예언서들의 배경을 살핀 후 요나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성서본문: 요나서 1, 2장

1장: 1. 야훼의 말씀이 아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3.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싯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싯으로 가는 배를 만나 배 쉬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4. 그런데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5.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 주실지 아느냐?” 7.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보니 요나가 나왔다. 8.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9.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했다. 11.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12.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13.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14.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15.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훼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2장: 1.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2.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뱃속에서 내게 하셨다. 3.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4.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다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밀려 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5.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6.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7. 저 땅 밑 멧부리로 빠져 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 내셨습니다. 8.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9.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10.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해설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기를 꺼려한 예언자들을 보았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가면 주님이 따라오지 못하실 거라고 상상하면서 도피했다. 우리 역시 어린 시절 요나처럼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읽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자. 여러분은 요나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언자로 그를 꼭 쓰셔야 했을까라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요나는 자신의 반항심으로 인해 타인들이 곤경에 빠짐을 본 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타인들이 고통 받느니 차라리 자신이 벌을 받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무섭고 하기 싫은 경험을 하고자 했고, 주님은 그를 구해주셨다.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자신의 결점을 보게 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점과 질문

- * 일부 사람들은 요나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 * 그러나 요나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여느 기적과 다를 바 없다.
- * 주님은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 * 큰 물고기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찰나에 바다 주위를 헤엄치고 있지는 않았다.

- * 주님은 요나가 해야 할 일과 그를 돌볼 계획을 세우셨다.
- *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환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신다.
- * 왜 요나는 도망갔는가?
- *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들로부터 도망가는 때가 있다.
- * 요나는 주님이 주신 교훈을 보았고, 자신이 살게 될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겼다.
- * 그 후 요나는 주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다.
- *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말에 경청했고 주님께 회개했다.
- * 결국 요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소 예언서는 어느 책인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3) 어느 성경책의 구절에서 요나의 신변이 확인되는가?
- 4) 주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5)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 6) 왜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가?
- 7) 그는 어떻게 순종을 피하려고 했는가?
- 8) 그가 탄 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선원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기로 했는가?
- 10)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떠했는가?
- 12)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는가?
- 13) 요나의 기도 종류는 무엇인가?
- 14) 그는 기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 15)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지자 무엇을 했는가?

질문의 답

- 1) 요나(다섯 번째 책) 2)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3) 열왕기하 14:25
- 4)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 5) 아시리아의 수도 6) 너무 거만해서
- 7)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탐으로써 8) 폭풍을 만났다 9) 제비를 뽑아서
- 10)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11) 잠잠해졌다 12) 3일 13) 감사기도
- 14)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15) 니느웨로 갔다

26

주님의 세례

머리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네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장

1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3.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5.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2.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 그 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21.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 가 가르치는데 22.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24.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25.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 갔다. 27.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8.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2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30.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37.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40.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1.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42.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43.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44.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45.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며 본 반을 공부하자.

- * 신약성서의 시작은 누구의 탄생으로 시작되는가?
- *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
- * 주님이 성장하신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누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 *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는가?
- *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가?
- * 주님은 요한에게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유아 세례의 경우 부모들은 아이들이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그러면 목사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부모가 정한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물을 조금 짙어 얹은 후 아이를 교회로 영접한다. 유아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들이 목사 앞에서 그들의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천국의 천사들과 이 세계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주님의 세계에 속해졌음이 알려지게 된다. 이런 의미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래로 기독교인의 표시로서 인식되었다.

본문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 스스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서 세례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보여 준다. 다음의 사항들을 읽고 그 내용들을 기억하도록 보자.

- *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나이는 대략 30세였다.
- *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무지했다.
- * 그분의 탄생 때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 *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언젠가 구세주께서 오실 것임을 구약성서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 * 물세례는 스스로의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 *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하는 소리가 들었다.

질문 정리

- 1) 구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신약성서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특징 지워 구분되는가?

- 3) 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는가?
- 4)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귀환 후 예언했는가?
- 5)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의 책은 무엇인가?
- 6) 말라기의 예언 후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
- 7)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8) 복음서는 몇 권인가?
- 9) 주님은 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몇 권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는가?
- 10) 마르코에 관해 아는 것을 말해보자.
- 11) 마르코는 주님의 생애 중 어느 시절부터 기록했는가?
- 12)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1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14)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 15)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16)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17) 세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누가 나자렛으로부터 세례 받으러 왔는가?
- 19)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마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 20)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이 제자라고 부른 첫 네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역사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 가나안에 유대주의의 재건설
- 4)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 5) 말라기 6) 약 사 백년 7) 예언이 없었기 때문
- 8) 네 권 9) 상호 보충해 주기 때문 10)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음, 베드로와 함께 여행했음 11) 주님의 세례 12) 말라기의 예언
- 13) 광야 14)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15) 메뚜기와 들꿀 16) 회개하라
- 17) 주님의 진리로 삶을 깨끗하게 영위해감 18) 예수 19)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음

2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1) 시므온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27

새 포도주

머리말

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 기적들에 관한 것과 주님의 공생애는 설교와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 언급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한 그분의 능력의 표시임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2장

2장: 1.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디는 말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뚫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6.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10.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12.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갔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하고 대답하셨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다. 19.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칫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20.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썩어져 더 찢어지게 된다. 22.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그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24.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자.

- * 주님이 성장하신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보내진 사람은 누구인가?
- * 요한은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주님이 세례 받기 위해 세례자 요한에게 가셨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그 때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한다. 그 이후 주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선을 베푸시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처음에 주님은 주로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다.

본문에서 주님은 가파르나움으로 되돌아 가셨다. 본문의 이야기는 움직일 수 없이 침상에 누어져 주님 앞으로 들려 온 한 중풍병자로 시작되고 있다. 그 때 주님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뵙고자 했고 그분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백성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님의 가르침을 싫어했다. 율법학자들이란 율법과 예언서의 사본 작성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성경 지식은 일반인들보다 우월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은 율법을 고지 곧 대로 지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들 중 특정한 교육을 마친 이들은 선생 곧 랍비라고 불렸다. 바리사이파인들은 교만하여 그들이 나라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강한 계층이라고 천명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심에 앙심을 품어 그분의 말씀에서 결점을 찾아내고자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규정에 반대되는 행동이나 가르침을 보이실 때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들었다.

주님은 바리사이파인들이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에 덧붙여 놓은 어리석은 규정들을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규정들을 낡은 옷에 비유하시며 거기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기울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새로운 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병”은 현대의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병이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새 사상은 우리 삶의 길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셋째, 낡은 습관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자라는 이해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과 요점들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에서 어떤 결점을 처음으로 발견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의 불평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 *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샀는데, 이는 그들이 로마 제국에 보낼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 * 주님께서 세리들과 함께하신 이유는 진실로 도움을 원하는 모든 자를 돕고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 * 주님에 대한 바리사이파인들의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 그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 2)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3) 첫 네 제자들은 누구누구인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5) 주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 6)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어떤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가?
- 7) 그 구역 중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8)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느 구역에서 있었는가?
- 9) 공생애 동안 주님은 어디서 사셨는가?
- 10)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11) 중풍 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12) 주님은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 1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 누구를 부르셨는가?
- 14) 그 제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란 어떤 이들인가?
- 16) 사람들은 왜 세리를 멸시했는가?
- 17) 본문에서 주님에 대한 첫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8)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9) 주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20)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2) 안식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비둘기가 나타났다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4) 전도, 가르침, 병 고치심 5) 회당 외 많은 곳에서 6)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대 7) 유대 8) 갈릴래아 9) 가파르나움(갈릴래아 해변가)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11) 요에 뉘여서 들고 왔다 12) 그의 죄를 용서하심 13) 레위(마태오)
- 14) 세금을 거두는 자 15) 바리사이파인 - 율법주의자, 율법학자 - 성경을 베끼는

이들 16)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임 17) 세리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임
18)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임 19) 공존해야 할 필요성 20) 안식일을 주님이
깨트렸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2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이다”
22) 예배드리고 주님에 관해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28

열 두 사도

머리말

27장에서 공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서 본장을 시작한다.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재고한 뒤 본문 서두의 기적을 그 예로 언급한
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3장

3장: 1.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지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하시고 4.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
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 왔다. 9.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 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14. 예수께서는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5.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뽑으신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혁명당원 시몬, 19.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20.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 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는느니 하고 떠들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26.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27.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 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31.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 보냈다. 32.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나?”하고 반문하시고 34. 둘러 앉은 사람들을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35. 하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해설

27장에서 배운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자. 중풍병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치료해 주신 병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 몰려 와서 때로 그분은 그들을 피하셔야 될 정도였다. 본 장은 주님께서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님께서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적들은 이를 핑계 삼아 그분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현명한 답과 진리를 가르치셔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시거나 그들이 몰려설 수 있도록 하셨다.

본장에서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살펴보자(마가복음 3장 7-19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과는 다른 인물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유명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가장 가깝게 따르며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어 그분과 함께 더 생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제자란 배우는 자를 의미하며, 사도란 과전되는 자 또는 보내지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의 열 두 제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후에는 열 두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주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는가?

- *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 *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는가?
- * 주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전도를 위해서 뽑혔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 열 두 제자 중 첫 네 제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중풍으로 앓는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주셨는가?
- 2)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행해야만 하는가?
- 3)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가?
- 4)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결점을 주님에게서 발견했는가?
- 5)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6)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7) 5번 질문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바는 무엇인가 ?
- 8) 본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은 무엇인가?
- 9)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불만족했는가?
- 10)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음모를 꾸몄는가?
- 11) 주님은 군중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 13) 주님은 몇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보자.
- 16)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17)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18)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 19)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 20) 주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 왜 주님은 가족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질문의 답

- 1) 죄를 용서하심 2) 일어나서 요를 걷어 걸어감 3) 마태오(레위)
- 4)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깨트린 것
- 5) 새 그릇이 필요하다 6) 옛 사상과 새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 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8)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 9) 안식일,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 받았다 10) 헤로데 당원 11) 바닷가 12) 산
- 13) 열 둘 14)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냄 15) 본문 참조
- 16)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음 17) 악마(베엘제불)
- 18) 우리의 악을 질책하는 진리를 거절함
- 19)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
- 20)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21) 주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머리말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전체가 비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본문의 첫 비유를 풀이하셨음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4장

4장: 1.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삼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백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13.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15.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새에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22.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어라.” 24.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 주면 달아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덩까지 없어 받을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27.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꽤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32.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써 말씀을 전하셨다. 34.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갔다. 37.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베개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책망하셨다. 41.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해설

본문은 주님의 비유들 중 하나다. 비유란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늦잠으로 학교에 자주 지각하게 되는 자녀에게 “옛날에 아주 잠꾸러기인 사람이 있었는데...”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부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잠꾸러기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일종의 비유이다. 부모가 “너는 아주 잠꾸러기야.”라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자녀는 당황하거나 거부감으로 인해 “아니예요.”라고 성내어 반박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자녀에게 말하게 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여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된다. 이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주님은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정확히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

인간의 본성은 아주 못돼서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싶고 타인의 결점은 잘 지적해 낸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는 이러한 우리의 약점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활용하신다.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 이야기의 요점을 쉽게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관한 것임을 알려 주신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널리 알려진 비유 중 하나다. 후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비유의 내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 씨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며, 각기 다른 땅이란 각기 다른 사람들임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옥토는 말씀속의 진리를 배워서 그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본문의 다른 두 가지 비유도 씨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좌절하여 씨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은 하늘나라의 씨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되고자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씨(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게을리 하면 씨들 중 일부를 잃게 되는 것도 염두 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겨자씨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나무가 되면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어 그늘을 줄 만큼 크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는가?
- 3) 주님은 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 4) 본문의 비유 중 셋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씨란 무엇인가?
- 6)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7) 주님은 등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9)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 10)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11) 곡식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
- 12) 누가 곡식을 자라도록 해 주는가?
- 13) 주님은 겨자씨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이 씨와 연관 지어 볼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질문의 답

1) 감추어진 의미를 가진 이야기 2) 구약성서에 48개, 신약성서에 40개 3) 처음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진리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씨 5)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 6) 각기 다른 마음 7)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야 한다 8) 계발시켜 주는 진리 9) 자신의 결점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10) 사용 안 된 것은 빼앗긴다 또는 등불이 꺼진다 11)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찬다.” 12) 하느님 13)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14)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 들일 만큼 된다.” 15) 어떤 진리는 처음에 우리에게 하찮은 진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된다.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머리말

본장의 핵심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구절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근원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기적을 공부할 때 기적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베풀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5장

5장: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5.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6.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 가 그 앞에 엎드려 7.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8.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사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12.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15.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이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19.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이르셨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22.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2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25.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체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않았다. 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해설

다음 질문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자.

- * 주님의 선교는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 *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누구인가?

- * 어느 제자가 세리 출신인가?
- *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적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굉장한 일들을 말한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다양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다. 다양한 기적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주님은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고 오그라진 손을 펴 주셨으며, 소경을 보게 하셨고 당대의 난치병인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셨고 바다를 잠잠케 만들기도 하셨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기적들을 배우게 된다. 주님은 귀신들인 자에게서 악령을 쫓아 내셨으며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은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서 비롯되며 그분이 생명을 관장하고 계심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실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 속의 이기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옳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로 있게 되는 것이다.

질문정리

- * 주님께서 살리신 소녀의 아버지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 주님과 제자들이 아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수근 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 그들은 주님을 믿었는가?
- * 주님은 소녀를 어떻게 되살아나도록 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기적은 무엇인가?
- 2)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기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4) 첫 기적은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 5) 첫 기적 속의 사람은 어떠했는가?
- 6)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였는가?
- 7)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 8)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악마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10)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11)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셨는데, 누가 도움을 청했는가?
- 12) 야이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 13) 야이로의 전달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 14)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15)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16)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떻게 소녀를 고치셨는가?
- 18) 주님은 부모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하셨는가?
- 19) 주님은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수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 2) 중풍병자, 오그라진 손을 펴심 3) 3 4) 요르단 건너 지역
- 5)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6) 달려와 주님께 경배했다 7) 군대
- 8)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9)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 10)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11) 야이로
- 12)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13)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 14)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15)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서
- 16) 그녀는 잠을 자고 있다 17) 손을 잡고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 18)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 19)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머리말

주님을 만났던 군중, 제자들,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헤로데와 나자렛 마을 사람들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6장

6장: 1.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가셨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3.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5.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7.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들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8. 그리고 여행하는 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9.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1.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13.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5.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7. 이 헤로데는 일찌기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18.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와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 주마”하고는 23.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24.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시켰다. 25.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쟁반에 담았다

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29.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3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3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나 군중들을 헤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하자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40. 군중은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45.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베싸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46.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짓누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시쯤이었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50.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며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 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해설

앞서 30장에서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 또는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그 중에서 주님은 후에 사도라고 불리게 될 열 두 사람을 선택하셨다. 사도란 보내지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전도를 위해 내보내며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도록 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들썩 짝 지워 보내면서 돈이나 여분의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고 마을에 들게 되면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집에 머물도록 당부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진실임을 발견했다. 8-11절에서 주님이 열 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자.

본문은 헤로데왕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도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데는 순간의 기분에 취해서 어리석은 약속을 했고, 이로 인해 세례자 요한을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하고야 만다. 우리가 헤로데의 과오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결코 부주의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적이란 주님의 권능으로 행해진 경이로운 일들을 말한다. 주님이 만물을 만드셨음

은 우리 모두 아는 진리이다. 그분은 구워진 빵 다섯 개의 재료인 곡식과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이 오병이어로 5천명이 넘는 군중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양식이 따로 있음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공부하게 되면,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닌 영을 위한 양식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알게 된다.

문답으로 정리

- * 헤로데는 주님이 행한 기적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 *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성공을 주님께 보고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사도들이 쉬는 곳을 찾아서 따라온 사람은 누구였는가?
- * 사도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자고 주님께 제안했는가?
- *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 * 주님은 군중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 *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는가?
- 2) 주님은 사도들을 파견할 때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3) 헤로데 왕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4)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5) 요한을 실제로 죽게 한 자는 누구인가?
- 6) 우리 속에서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7) 제자들은 군중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자고 제안했는가?

- 8)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10)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11) 주님은 물고기와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2) 몇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가?
- 13)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 14)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 15) 제자들은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주셨는가?
- 17) 우리는 육신의 양식 외에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한가?
- 18) 우리의 영적 양식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질문의 답

- 1) 그곳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 2) 어떤 여분도 취하지 말라
- 3) 세례자 요한 4) 그의 목을 베었다 5) 헤로디아 6) 사리사욕, 자아사랑의 지배
- 7) 제각기 양식을 구하러 보냈시다 8)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9)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10) 오십 명 백 명씩 떼 지어 앉히셨다 11) 축사하시고 떼었다 12) 오천 명 13) 열 두 광주리 14) 베싸이다 15) 역풍을 만났다
- 16) 물 위로 걸어 오셨다 17)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사랑과 지혜 18) 홀트려진 생각을 질서대로 놓고 우리의 재질을 선용하면서 지식과 강함을 주님께게서 찾는다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머리말

본 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공부할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의 초기에 연유되고 있다. 성서 지도에서 거룩한 땅의 세 구역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요르단강 건너편과 여리고를 지나간 경로를 확인해 본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0장

10장: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하고 반문하셨다. 4.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6.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1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6.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25.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6.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 주셨다. 33“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 갈 것이다. 34.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제배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38.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40. 그러나 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41.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46.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48.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자 50. 소경은 걸옷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 왔다. 51.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해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나 그들은 그분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순진하며 신뢰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순진함이란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심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의식주를 마련해 준다. 주님은 우리가 살 세상과 집 지을 나무나 돌을 주셨고, 우리의 음식과 옷의 재료가 되는 각종 곡식과 짐승들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감사하듯이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바르게 자라게 된다. 그리고 부모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서 지혜와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부유하든 가난하든지간에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의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즐기도록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쓰려고 할 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우리 또한 타인을 돕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부자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어 보았는가?
- * 주님은 그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 젊은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더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이 있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 2)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3) 주님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4) 주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순진이란 무엇인가?
- 7)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0) 부자 청년은 왜 되돌아갔는가?
- 11) 주님은 부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2)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3)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15) 주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지방 2) 예루살렘 3)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 4) 너희들의 심정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5) 어린이같이
- 6) 글자대로 보면 해치지 않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바람
- 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 8) 계명에 순종하라 9)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 10)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11) 재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12)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신뢰함 13)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
- 14) 자리에 앉게 하는 특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 15) 섬김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머리말

본장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종려주일에 관한 것으로서, 성탄절에 공부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어진 자의 의미를 언급한다. 기름이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1장

1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과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4.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7.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수많은 사람들이 겂옷을 벗어 길 위에 펴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10.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1.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 보셨으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16.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하고 나무라셨다. 18.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25.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7. 그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하고 물었다. 29.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33.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자.

- *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 신약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 *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종려주일이란 무슨 날인가?
- * 과월절 축제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구약성서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더 악해져서 주님께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해지자 남아 있던 소수의 선한 사람들까지 매우 불행해 졌다. 이 소수의 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그분의 오심과 생애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배워 그분의 공생애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본장은 그분의 공생애 중에 있었던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종려주일에 관한 것이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제정 되면서 생긴 이름으로 당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과월절이라는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셨던 것이다.

본문은 주님과 제자들이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주님은 이것이 그분의 적들, 즉 그분이 그들의 사악함을 지적하셔서 그분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그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죽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그분께 간청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이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일임을 설명해주셨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실 것임도 말씀해 주셨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예언을 성취시키심으로써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

다고 기록된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망아지가 나귀의 망아지라고 불린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타시려고 나귀를 선택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이나 관관이 나귀를 타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 중 하나였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는 왕과 관관을 겸한 자이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환성을 울리며 했던 말인 호산나는 히브리어로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나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들이 꺾어 그분이 지나는 길에 깎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2) 그분은 어디에서 성장하셨는가?
- 3)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누가 미리 보내셨는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인가?
- 5) 본과에서 다루지는 부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6) 이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7) 주님은 무슨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8)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귀를 발견했는가?
- 9)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10) 주님은 어디에서 밤을 보내셨는가?
- 11)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2)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 13)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14)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 15)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6) 주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17)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 18) 이 주간의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 1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나자렛 3) 세례자 요한 4) 3년 5) 종려주일 6)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7) 나귀 8) 길가로 난 문 앞에서 9)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기 때문(요한복음 12:13) 10) 베다니아 11)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셨다 12) 말라버림 13) 산을 움직인다 1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자를 용서하듯이 15)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16)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근원을 물으심 17) 성주간 18) 마지막 만찬 후 체포되심 19) 십자가에 달리심

34

성 만찬

머리말

본과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그분이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셨음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4장

14장: 1.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5. 이것을 팔면 삼백 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7.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0.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시오.’하고 말하여라. 15.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서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16.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19.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열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0.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셨다. 31.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32. 그들은 계셰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34.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36.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37.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하시고 39.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돌아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2.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3.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 지어 왔다. 44.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5.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46.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그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48.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9.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50. 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1.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52.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여 들었다. 54. 베드로는 떨쩍이 떨어져서 예수의 뒤를 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 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57.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58.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 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그 때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1.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2.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63.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65.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66.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67.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68.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69.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 패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 패일 거요”하고 말하였다. 71.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72.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해설

여러분은 종려주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그분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33장에서 배웠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일은 주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의 시작에 있었던 일이다. 주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축제 중 가장 큰 축제인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 오셨다. 과월절 축제란 주님이 모세를 시켜 노예가 되어 버린 히브리 자손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치르는 성대한 축제이다. 이 축제는 며칠 동안 지속되며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바에 따라 모든 것이 행해진다. 음식은 불로 구워낸 양과 효모 없이 만든 빵, 즉 누룩이 안 든 빵뿐이다. 거기에 포도주를 곁들여 마신다.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축복하시고 기념토록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 또는 주님의 만찬의 시작이었다. 훗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월절 대신 이 날을 성만찬으로 기념했다.

성찬의 참다운 의미는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보다 더 혹독한 악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과 이러한 구속의 역사가 주님께서 지옥의 악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이뤄졌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 * 주님은 마지막 주간 동안의 밤을 어디서 머무셨는가?
- * 과월절 축제는 어느 때의 목요일 저녁에 거행되어졌는가?
- * 예수님은 과월절을 준비토록 누구를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가?
- * 이들에게 좋은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이 사용한 방은 그 집의 어디에 있었는가?
- *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주님은 그들 중의 한명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께서 배반을 언급하시자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떠했는가?
- *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작은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 부자 청년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3) 주님은 그 청년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4) 그 청년이 기꺼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재물(에 의지함)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는가?
- 7) 진정한 위대함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베다니야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9)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10)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11) 주님은 두 제자에게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셨는가?
- 12) 과월절을 준비한 방은 몇 층에 있었는가?
- 13)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1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각기 뭐라고 물었는가?
- 15)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6)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서 이날 시작된 예식은 무엇인가?
- 17)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주님은 저녁 식사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 19) 거기서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 20)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21) 그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가?
- 22) 주님은 어디서 심문을 받으셨는가?
- 23) 대사제는 주님에 대해 어떤 죄명을 만들었는가?
- 24)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무엇인가?
- 25)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 2)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3) 계명에 순종하라
- 4)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 5)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 6) 영예의 자리
- 7) 모든 이를 섬김
- 8) 주님께 기름 부었다
- 9) 쓸데없이 낭비했다
- 10) 그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 11)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 12) 이층방
- 13) 이집트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됨
- 14)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 15)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16) 성찬
- 17) 신성한 선함과 진리
- 18) 계셰마니
- 19)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 20) 가리옷 사람 유다
- 21) 입마춤
- 22) 대사제 앞에서
- 23) 신성모독, 그리스도라는 주장
- 24)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 25)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

3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머리말

성만찬이 제정된 것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까지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사제들이었다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5장

15장: 1.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3.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3.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하고 다시 물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6.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8. 군중은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전례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 달라는 것이냐?”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14.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나?”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16.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들었다. 17.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18.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나갔다. 21. 그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역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23.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24.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여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손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2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3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32.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하고 서로 지껄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33. 낮 열 두 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36.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고 말하였다. 40.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 다니며 예수께 시종하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42.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43.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44.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 되었는가 물어 보았다. 45.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 가지고 온 고운 베에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설

34장에서 언급한 성만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과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후 그분을 기념하여 이 새로운 예식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과월절 대신 성찬을 가지게 된 이유이다. 주님께서 성만찬에 참석했던 열 두 제자의 한 명인 가롯 유다가 그분을 배반 할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는 주님을 대사제의 하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는 대사제의 하인들에게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일러 주었다. 유다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 역할을 담당한 사도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돈 자루를 채우는데 더욱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가 주님의 죽음을 바래서 그분을 배반한 것이 아님을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아마도 주님께서 스스로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과월절 만찬 후에 유다는 대사제의 하인들을 이끌고 주님이 기도하러 나가신 게세마니 동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다가가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대사제의 하인들은 주님을 감옥으로 끌고 갔고, 대사제는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빌라도에게 넘겨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주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빌라도는 주님을 석방하고자 했지만, 사제들과 바리새사두개인들의 선동으로 흥분한 군중들은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붙들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로마 병정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일요일인 사흘 뒤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 하셨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그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셨는가?
- 2)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이 때 주님이 새로 설립하신 축제는 무엇인가?
- 4) 기독교의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5)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6)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맨 먼저 심문을 당하셨는가?
- 7) 대사제는 어떤 명목으로 주님께 죄가 있다고 했는가?
- 8) 그 다음 주님은 실형에 처하도록 누구에게 보내 지셨는가?
- 9)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왜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는가?
- 11) 주님 대신 빌라도는 누구를 석방했는가?
- 12) 빌라도의 병사들은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 13) 주님은 어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 14) 골고다로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누가 운반해 주었는가?
- 15) 병사들은 주님의 겜옷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했는가?
- 17) 주님의 적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는가?
- 18)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백인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20) 누가 주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가?
- 21)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 22)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까지 어느 여인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 23) 왜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도록 허용하셨는가?
- 24) 주님의 겜옷을 나눠 가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함 3) 성찬
- 4) 악의 노예에서 구속됨을 기념함 5) 가리옷 유다
- 6) 대사제 7) 신에 대한 모독 8) 본디오 빌라도
- 9) 주님께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 10) 군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11) 바라빠 12) 주님을 희롱했다 13) 골고타
- 14) 키레네 사람 시몬 15) 제비뽑아 나누었다 16) 두 강도
- 17)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18)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 19)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 20)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1)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22) 두 마리아
- 23) 악은 실지로 선을 파괴할 힘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음
- 24) 자신의 주장을 타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단을 발췌함

36

부활하신 예수

머리말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정리하면서 본장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6장

16장: 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4.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6.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8.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10.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 두 사람도 돌아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1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21.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22.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해설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이다.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육을 입고 오심을 기념하고, 부활절에는 죽음을 이김으로 입으셨던 육이 영화되었음을 기념한다. 주님은 33년간 세상에서 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생활의 마지막 주간에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것을 이뤄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자 돌변했다. 주님은 금요일 새벽에 그분의 적들에게 사로잡히셨고, 결국 그들은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주님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셔졌고 사람들은 큰 돌을 굴러 그 입구를 막았다. 그러자 주님의 적들은 그 돌을 봉인하고 아무도 그것을 굴러내지 못하도록 로마 병정을 세워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제거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 전에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 계신 주님을 보자 과거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리 삶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죽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부활을 의미함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히 살도록 준비해 두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아름다운 세계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은 아픔이나 고통 또는 고민이 없는 곳으로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존재하는 천국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정직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유용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만이 존재하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부활절 아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무덤에 맨 먼저 간 사람은 누구인가?
- * 그들은 왜 무덤에 갔는가?
- *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는가?
- * 주님은 누구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보여 주셨는가?

질문 정리

- 1)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2)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가?
- 4) 왜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5)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 6) 왜 군중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7) 왜 군중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에게서 돌아섰는가?
- 8) 그 주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일요일 아침 무덤에 누가 왔었는가?
- 11) 그들은 왜 왔었는가?
- 12) 그들은 오면서 무엇을 의문스러워했는가?
- 13) 그들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4)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5) 주님은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는가?

- 16) 그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었는가?
- 17)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8)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9) 주님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20)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 21)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그리는가?
- 22) 주님이 일어나신 후 왜 여인들이 처음 그분을 뵈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부활절 2) 죽음에서 예수가 일어나셨음을 기념 3) 종려주일 4) 군중이 주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5) 왕의 표시 6)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 7)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해서이다 8) 마지막 성찬 9) 십자가에 달리심 10) 두 마리아 11)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12) 자기들을 위해 누가 돌을 굴러 내줄까? 13) 돌은 굴러졌고, 주님은 가셨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14) 그분은 일어나셨다 15) 막달라 마리아 16) 아니다 17)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18)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19) 구원 받을 것이다 20) 승천하셨다 21) 물질주의적인 생각 22) 그녀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한다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머리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사도 요한에 대한 것과 당시의 주변 환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4장

4장: 1.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3.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었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훤히 따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신이십니다. 6.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네 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쳤다. 9.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하고 찬양했습

니다.

해설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특별한 지침과 권능을 받도록 열 두 제자를 선택하셨다. 사도들은 그분이 지상을 떠난 뒤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 그들의 복음은 주님께서 모든 악을 이기셨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에 관해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열 두 명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로 사도란 ‘과전되어짐’이란 뜻이다. 주님께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다.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아주 신실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해냈다.

요한은 사도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거의 9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몇몇 초대 교회를 지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가 죽기 전 기독교로 불리는 이 새 교회에 있게 될 것에 관한 경이로운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 환상은 성서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 요한은 천국에서의 주님을 보었고 그분이 지상에서 자신이 따랐던 분이였음을 인식했다. 이 후 모든 이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에 따라서 어떻게 심판될 것인가가 그에게 보여 졌다. 본문은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의 시작에 해당된다. 본문을 다시 읽고 이 환상의 세부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에제키엘의 환상을 읽어 보고 본문에 있는 요한의 환상과 비교해 보자. 에제키엘은 요한보다 약 칠 백 년 전의 사람이며 요한과 똑같은 환상의 일부를 보았다. 본문의 생물이란 에제키엘이 본 생물과 같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거룩들이라고 불린다.

질문 정리

- 1) 성서의 어떤 책이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해 말해주는가?
- 2) 우리는 왜 이 책을 다루지 않는가?

- 3) 우리는 본과에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4) 이 책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5)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누구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7) 요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
- 8) 요한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 9)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 10) 본문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11) 옥좌에 관해 기술해 보자.
- 12) 몇 명의 원로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생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 14)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 15)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생물을 공부했는가?
- 16) 이 생물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 17)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 18)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행전, 서간서 2) 속뜻이 없기 때문 3) 계시록 4) 묵시록 5) 환상들
- 6) 사도 요한
- 7) 파트모스섬, 유배되었다 8) 부활하신 주님 9)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10) 옥좌
- 11) 제 2-5절 참조 12) 24 13) 4 1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 15) 에제키엘 1장 16) 거룩들
- 1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18) 예배시간의 답창 순서에서

38

봉인된 책

머리말

37장의 내용이 본과의 서론이 되므로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5장

5장: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6.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효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해설

여러분은 요한이 주님께서 아름다운 옥좌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스물 네 명의 원로들과 네 거룩들을 보았음을 기억할 것이다. 38장은 이 환상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보자. 주님의 손에 가지신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는데, 두루마리 또는 책은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다. 또한 어린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어른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하더라도 주님께

서 배워야 할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설명이나 영감이 있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비유라
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비유가 의미하는 것, 즉 속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봉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전부는 속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로
일종의 비유이다. 말씀의 속뜻은 아주 오랫동안 봉인 되어졌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그 봉인들을 열어 주실 것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열어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임마누엘 스웨덴북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의 속 뜻을 보여 주셨다. 그리
고 그분은 그에게 보여주신 바를 글로 써서 책으로 출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는 말씀의 속 뜻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데, 이는 그분이 친절하시며 순진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은 힘이 세고 강하셔서 사자라고도 불리신다. 제 14절에서
생물들은 아멘이라고 했다. “아멘”이란 “그렇게 되어 지리라”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끝머리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기도가 진실이 되어 이뤄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모두 협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준비를
갖출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먼 옛날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오래전 예언자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자 (다니엘서 12:4).
이 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봉인되어
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여서 그 속에는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속 뜻을 이해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와서 마침내 주님께서 봉인된 책을 여실 수 있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성경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질문 정리

- 1) 하늘에서 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2) 옥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가?
- 3) 몇 명의 원로가 그곳에 있었는가?
- 4) 얼마나 많은 생물이 그곳에 있었는가?
- 5) 그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
- 6) 그 생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생물은 주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 8)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오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 9) 왜 요한은 울었는가?
- 10)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11) 요한이 본 어린 양에 관하여 설명해 보자.
- 12) 원로들과 생물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는가?
- 14)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 15) 노래 부른 뒤 네 생물은 뭐라고 말했는가?
- 16) 아멘은 무슨 뜻인가?
- 17) 이 책의 나머지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질문의 답

- 1) 옥좌 2) 주님 3) 24 4) 4 5)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6) 거룩들 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8) 두루마리 또는 책 9) 봉인을 뿜 자가 없어서 10)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11)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뿔, 일곱 눈 12) 거문고나 향이 담긴 금대접 13) 수천수만 1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5) 아멘 16) 그렇게 되어 지리다 17) 모든 것의 심판

39

심판과 기록한 성

머리말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을 읽어 보자. 또한 계시록 21장 2절도 주목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21장 1-7절

20장: 11.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짚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해설

사도 요한이 본 굉장한 환상은 다름 아닌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맨 처음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은 그가 알고 사랑했었던 주 예수로 옥좌 위에 앉아 계셨고 그분 둘레에는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있었다. 또한 그는 그분의 오른 손에 들린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 역시 아는 책인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 책은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책이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 주실 것임이 요한에게 약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요한의 환상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 안에 기술되어 있다.

요한이 보는 가운데 말씀의 봉인들은 하나씩 떼어졌다. 요한은 봉인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때마다 더 격렬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모습이며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 본문 첫 부분에서 요한은 큰 옥좌를 다시 보았다. 그 주변에 펼쳐진 많은 책들이란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살았던 삶이 기록된 영혼의 책들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책 곧 말씀이었다.

사람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말씀이 가르치는 법대로 얼마나 배우고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심판 되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 곧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의 책을 날마다 그리고 매순간마다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요한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되어 장차 심판 때에 우리의 책이 그동안 적어 왔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펼쳐짐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혼에 기록되는 이 책의 중요성을 각골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배우고 행동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고 교회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배우고 깨닫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제 21장에서 요한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은 바로 이 성의 이름에서 기원한다. 새 예루살렘성은 천국적인 품성과 천국 자체를 그리고 있다.

질문 정리

- 1)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무슨 책인가?
- 2)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봉인이 찍혀서 봉해져 있었는가?
- 3)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4) 본문에서 옥좌 앞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5) 열려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 6)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되는가?

- 7)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제 21장 첫 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9)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처음 접해보았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 11) 이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이 도성에서 축복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15)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 16)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 18) 생명의 샘물은 무엇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일곱 3) 주님 4) 죽은 자들 5) 개개인의 인격 6)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7) 불 못에 던져지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창세기 1장 1절 10) 거룩한 성 11) 새 예루살렘
- 12) 우리 교회의 이름이므로 13)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
- 14) 알파와 오메가 15)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16) 생명의 샘물
- 17) 진리에 목마름 18)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19)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격이 발달함

40

새 교회 날

머리말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과 인류를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밝혀 주심이 재림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 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회는 예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많으나 그분을 거절하는 대가 역시 같은 비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셋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 이 책은 누구를 통하여 쓰였는가?
- *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요한은 맨 처음 어떤 분을 보았는가?
- * 주 예수께서 요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였는가?

우리 교회는 매년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북이 1770년 6월 19일에 주 예수께서 그분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심과 그분을 인식하여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약속으로,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진리를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며, 남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대신 친절과 관용 그리고 용서로서 타인을 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즉, 선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어려운 난관을 만날수록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더 쉽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본문의 첫 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언급된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이다. 그래서 이 두 철자는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칭하셨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자로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그분을 알고 섬기는 것임을 의미한다.

요한은 주님께서 참다운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재림이었다. 주님의 재림은 자연계의 구름을 타고 천군을 거느리고 하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열어주심을 뜻한다.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여심으로써 하늘의 빛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비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스웨덴북이 목격하였는데, 이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영이 들려짐을 입은 스웨덴북은 천국에서 있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지상의 시간으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바로 1770년 6월 19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주님께서서는 이마누엘 스웨덴북을 택하셔서 주님의 출판인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출판된 스웨덴북의 저서들에서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공부함과 더불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웨덴북의 저서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께서 스웨덴북에게 주신 열쇠를 얻어서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여 얻은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 즉, “주 예수의 품위가 당신에게 있어지기를 빕니다.”이다.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 2) 우리는 그날을 왜 그렇게 부르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4)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인가?
- 5)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은 어디서 자주 접했는가?
- 7) 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만드셔야 했는가?
- 8) 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뜻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 9) 우리가 어리다하더라도 위의 사항(8항)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10) 왜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가?
- 11) 10항과 같은 잘못된 결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 12) 어떤 법이 결코 변할 수 없는가?
- 13) 주님은 우리의 새 시대에 부응되도록 무엇을 해주셨는가?
- 14) 주님의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의 날 2)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91항 참조 3) 나는 알파와 오메가...
- 4)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5) 요한이 그분을 인정했으므로
- 6) 예배의 축복기도에서 7)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통찰할 필요성 때문
- 8)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함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
- 9)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10) 굉장한 과학 발전
- 11) 성경의 법은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12) 주님의 법
- 13) 말씀의 내적인 예배를 여셨다
- 14) 새 진리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